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발 간 사 ■ ■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경쟁위주의 학업과 수면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높은 청년실업율과 장래에 대한 불안 심리도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혼율 증가와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를 포함하여 가족의 해체현상과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도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유니세프(UNICEF)는 1996년부터 ‘청소년 친화 도시 의제(CFCI: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통해 ‘청소년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30개 나라 약 1,300여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처음으로 2013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 현재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유니세프 인증을 준비 혹은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이 연구는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Ⅰ」를 시작으로, 2014년에 이어 연속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총괄연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사사업 연구Ⅲ’의 세부 영역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과 더불어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운영(1차년도)과 추진전략 개발’ 등이다. 특히 시범사업과 추진전략 개발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언으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에 따른 종합제언,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적용방안,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개발,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을 위한 법제정 권고 사항 및 조례(안)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정책방안들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에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추진체계	6
4. 연구방법	7
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종합지수 산출	11
1. 연구개요	13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타당화	14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사 개요 및 행복 결정 요인 분석	18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수 산출	25
5. 소결	59
I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결과 및 추진전략 개발	63
1. 시범사업 추진 내용	65
2. 시범사업 지역 현황 및 운영설계	66
3.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종합 제언	75
4. 시범사업 효과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84
5.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86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절차 및 추진전략 개발	87
IV.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사업 운영 연구	95
1. 운영목적	97
2. 추진내용	97
3. 2015년도 청소년참여 및 권리 분야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98
4. 청소년정책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 인식 변화	98

5.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제안	100
6. 소결	104
 V. 분야별 주요 추진 정책 과제	 105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추진 정책 과제	107
2.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제안 정책 추진 과제	116
3. 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및 종합 지수 활용 정책과제	126
 참 고 문 헌	 129

표 목 차

〈표 Ⅰ-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계획 연구 추진 개요	5
〈표 Ⅰ-2〉 설문조사 개요	9
〈표 Ⅱ-1〉 청소년 행복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18
〈표 Ⅱ-2〉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의 특성	21
〈표 Ⅱ-3〉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 관계	22
〈표 Ⅱ-4〉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	24
〈표 Ⅱ-5〉 학교급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26
〈표 Ⅲ-1〉 시범사업 영역 및 내용	66
〈표 Ⅲ-2〉 군산시 청소년 인구현황(9세~24세)	67
〈표 Ⅲ-3〉 군산시 학교 현황	67
〈표 Ⅲ-4〉 경제영역 시범사업 계획	69
〈표 Ⅲ-5〉 경제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70
〈표 Ⅲ-6〉 참여영역 시범사업 계획	71
〈표 Ⅲ-7〉 참여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72
〈표 Ⅲ-8〉 관계영역 시범사업 계획	73
〈표 Ⅲ-9〉 관계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74
〈표 Ⅲ-10〉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절차	88
〈표 Ⅳ-1〉 영역별 청소년 생활공감정책 제안	100

그림 목차

【그림 I-1】 3년차 정책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7
【그림 II-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3차년도)	17
【그림 II-2】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25
【그림 II-3】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0~4점인 경우의 비중과 9~10점인 경우의 비중	27
【그림 II-4】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	29
【그림 II-5】 관계영역	30
【그림 II-6】 주관적 웰빙영역	32
【그림 II-7】 건강영역	33
【그림 II-8】 교육영역	34
【그림 II-9】 안전영역	36
【그림 II-10】 활동영역	37
【그림 II-11】 참여영역	38
【그림 II-12】 환경영역	39
【그림 II-13】 경제영역	40
【그림 II-14】 종합지수	41
【그림 II-15】 서울 청소년 행복지수	42
【그림 II-16】 부산 청소년 행복지수	43
【그림 II-17】 대구 청소년 행복지수	44
【그림 II-18】 인천 청소년 행복지수	46
【그림 II-19】 광주 청소년 행복지수	47
【그림 II-20】 대전 청소년 행복지수	48
【그림 II-21】 울산 청소년 행복지수	49
【그림 II-22】 경기 청소년 행복지수	50
【그림 II-23】 강원 청소년 행복지수	51
【그림 II-24】 충북 청소년 행복지수	52

【그림 Ⅱ-25】 충남 청소년 행복지수	53
【그림 Ⅱ-26】 전북 청소년 행복지수	54
【그림 Ⅱ-27】 전남 청소년 행복지수	55
【그림 Ⅱ-28】 경북 청소년 행복지수	56
【그림 Ⅱ-29】 경남 청소년 행복지수	57
【그림 Ⅱ-30】 제주 청소년 행복지수	58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추진체계
4.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최고수준이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부유국 아동상해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6개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가장 높고,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한, 2013). 이는 지역사회 환경이 각종 사건, 사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문제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소년범죄 결과는 재산범죄의 경우 14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이 66%정도 증가하였으며, 강력범죄는 13세미만이 76%, 14세-16세가 500%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학교내 경찰배치 등 새로운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영한, 2013)

청소년 성장환경이 취약한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전체 예산의 0.1 수준으로 타분야에 비하여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2011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행복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9.4%인 반면에 프랑스 45.9%, 영국은 45.3%, 스웨덴은 43.2%, 미국 36.6%, 일본 3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장근영외 2013).

이는 이혼가정의 증가, 조손가정의 증가 등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높은 청년실업율과 불안정한 장래 및 학업 스트레스 등도 청소년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장근영외, 2013)

* 집필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본 보고서는 총괄보고서로서 하위추진 과제인 성윤숙의 ‘청소년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오해섭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 전략 개발’, 김영한외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운영 연구’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연속 과제로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모니터링 추진 사업 등은 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연구 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과 2차 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과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96년부터 유니세프(UNICEF)의 ‘청소년 친화 도시 발의 (CFCI: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통해 ‘청소년 친화 도시와 마을(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3,000여개 도시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UNICEF, 2013)

우리나라도 청소년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토록하고, 2항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청소년 성장여건과 사회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우대, 청소년의 건강 보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부터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소년정책은 정책목표와 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만이 계획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부재한 실정이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김영한, 2014)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1차 년도에는 청소년의 행복(well-being)에 대한 개념 고찰에 기초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초안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16개 시·도 단위로 분석하였다.(장근영외 2013)

정책사업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각 시·도에 청소년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장기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반면에 1차 년도에서는 청소년 행복 지표의 개발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개발된 지표 초안을 활용한 구체적인 정책안 마련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있다.

2차 년도에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행복수준 및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진단을 위한 최종 지표를 확정하고, 선정된 지표의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행복수준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의 수준을 17개 시·도 단위로 진단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였으며, 청소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17개 시·도 정책 평가 및 개발하고,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하였다.(김영한외 2015, 김지경외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행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표 즉, 지역사회 환경의 청소년 영향평가 지표나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지수를 측정하는데 요구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3차 년도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및 지수화 과정의 심화 및 종합지수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종합 진단 측정하며, 둘째는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을 통하여 17개 시·도의 청소년사업과 17개 시·도에 대항 1개에 대해 청소년 정책 영향을 평가 및 정책사업을 제한토록 하며, 셋째는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범사업을 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개 청소년 친화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사업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 방안연구’의 3차 년도 연구로서 1차 년도의 기초연구 및 총론적 연구와 외국의 동향 분석, 2차 년도의 청소년 행복지표 확정 및 전국단위 조사 및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수준 진단과 청소년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3차 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복지표를 보완 및 추가 개발하여 체계화하고 종합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2015년 청소년시행정책에 대해 17개 시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으며,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군산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전략을 체계화 하였다.

표 I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계획 연구 추진 개요¹⁾

연도	분야	지속사업	연도별 사업
2013 년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행복수준 중심) -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들의 실태진단 (전체영역) - 정책 제언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추진과 과제 안에 대한 기준 및 발전방향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 전문가 등)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보고서 발간

1) 1차 년도 2차 년도 연구실행계획 수정 보완

연도	분야	지속사업	연도별 사업
2014 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 (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	-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5 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수정,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이 행복도시 조성 추진 전략 연구 - 청소년이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 년도)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 - 지자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시군구 단위) - 지자체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1차 년도 실시	-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청소년 제안의견 보고서 발간
2016 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추가,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 - 시범사업 2차 년도 실시	- 1차 년도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 시범사업 추가 및 시범지자체 확대 실시

3. 추진체계

본 연구의 포괄적인 목적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행복영역중 어떤 영역이 부족한가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청소년행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추진전략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다.

셋째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정책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모니터하고 청소년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이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사업제안토록 하였다.



【그림 1-1】 3년차 정책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고도화를 위해 CFCI(Child Friendly City Index), 유네스코, OECD 등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등 다양한 선행연구 고찰하고, 정부의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등의 문헌을 연구한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을 위해 연구의 분석틀, 지표의 구성 및 고도화, 지수 개발, 지표와 관련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학계, 행정계,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사업 자문은 17시·도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기초로 운영하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자료를 산출 하였다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비고
1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내용 검토	• 관계부처 공무원 5여명 • 지방 공무원 5여명 • 학계 20여명 • 현장전문가 15여명	연구추진에 따라 변경 가능
2	청소년모니터링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		
3	최종 지표 개발 및 측정, 지수산출		
4	정책과제 개발		

3) 양적 조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적 지표 조사를 위해 2015년 6~7월 사이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0,783명 청소년과 교사 361명, 학부모 2,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와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각종 사회 및 행정통계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지표들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통계자료원의 행정통계, 행정기관의 내부자료 및 원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표 1-2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청소년조사	전국 17개 시도의 초4~고3 재학생 전체	
	교사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전체 (권역별 · 학교별 비례할당)	
	학부모	해당학생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권역별 · 학교별 비례할당)	
표집 틀	• 청소년 및 교사 : 2014 교육통계 연보 • 학부모: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표집 틀 없음		
표본 수	청소년	10,783명	
	교사	361명	
	학부모	2,349명	
표집방법	• 표집방법: 변형비례, 층화다단계 집락표집 • 조사방법: - 청소년: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 교사: 개인단위 1대 1 자기기입식 - 학부모: 학생을 통한 유치, 우편조사		
조사 시기	2015년 5월 ~ 7월		
통합조사 참여	통합조사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4) 시범사업

금년도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우리나라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 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정 시범사업 I』은 2014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의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추진하였다. 추진과정은 전국 단위 공모절차와 전문가 그룹 심사과정을 거쳐 1개 지역이 선정되어, 2015. 4.1~2015.9.30.(6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제 II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종합지수 산출

1. 연구개요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타당화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사
개요 및 행복 결정 요인 분석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수
산출
5. 소결

제 II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종합지수 산출*

1. 연구개요

3년차 연구는 2년차 연구에서 개발한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및 지수화 과정을 심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청소년 영향 및 친화도 측정을 위한 지표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은 물론 그 현실성과 실천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지속성의 측면에서 볼 때 1, 2차 년도의 연구에는 아쉽게도 지표에 대한 상세한 정의서가 제시되고 있지 않음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용이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연속성을 지닌 연구의 핵심은 연계성이다. 연구의 진행과정이 전체 연구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지니기 위해선 각 해 연구는 전년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어지고, 또 차년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표에 대한 상세한 정의서와 함께 설명을 추가하여 지표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임으로 추후 연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현실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주관과 객관의 생산적인 융합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과 행복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객관적 행복조건의 조화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지역사회의 객관적 행복조건이 지혜롭게 융합되어야 한다. 동시에 1, 2차년도 연구를 통해 개발된 행복지표는 그러한 방향으로 보완, 및 심화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행복지표의 현실적 적용과 실천적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마찬가지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지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 집필 : 성운숙·홍성호-본장은 하위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 III-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지표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2차년도 청소년 행복지표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

둘째, 1, 2차 년도에 적시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제시하고 설명을 추가하여 지표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임으로 추후 연구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중 주관지표는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설문조사를 통해 16개 시도별, 도시규모별(시지역, 도지역),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제주) 현황을 분석하였다. 객관지표에 대해 2014년 16개 시도 별2), 도시규모별(시지역, 도지역),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제주)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계열 현황을 제시하고 2010년~2014년 시계열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관적 행복감과 객관적 행복조건사이의 효율적 융합을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개별적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 관계, 주관적웰빙, 건강, 교육, 안전, 활동, 참여, 환경, 경제 등 9개 영역의 세부 지표에 대해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차이가 있을 경우 결과분석을 통하여 영역별 실질적 정책제언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개별 지역사회로 하여금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에 이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학교 급별 차이와 지역 간 차이를 연계 종합하여 살펴봄으로 심화 고찰하고 16개 시도별 영역간 지역별 지수에 대해 심도있게 탐색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정책협의회 개최 및 정책과제 자문을 실시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 정책 개발을 이루고자 한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타당화

2015년 3차 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는 2차 년도 청소년 행복지표를 기본 틀로 설정하고 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2차 연도의 지표를 토대로 총 9개 영역 68개의 항목(객관지표 37개, 주관지표 31개)으로 구성된 청소년이 행복한

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세종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 현황을 제시하였음.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를 구성하였다. 이 지표는 개인 단위 자기응답식 지표와 2차자료를 활용한 객관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2차 년도(2014년)에 개발된 64개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총 1회에 걸쳐 지표의 적합도를 OECD 지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표의 우선순위, 지표의 삭제, 수정 및 지표의 추가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 타당도의 재검검, 지표 체계의 영역 구성 검토 등의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2차년도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가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선정시 행복에 관한 연구 수행 경험 및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영역별 지표 집필 수행 경험 등이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3차 년도(2015년)에서는 청소년의 행복 지표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2차 년도 청소년 행복지표를 보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2차 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와 CFCI(Child Friendly City Index), 유네스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아동 삶의 질 지수 등 국내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9개 영역별로 분류하여 참조 지표를 제시하였고, 영역별 전문가에게 2차 년도 지표를 토대로 지표의 수정, 삭제, 지표 추가 등을 질문하였고, 그에 따른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회의와 연구진회의를 통해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2차 년도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지표의 삭제 및 추가, 수정 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둘째, 3차년도 지표에서는 2차년에 작성된 지표영역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상위영역과 하위영역과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류 체계를 명료화하였다. 2차년도 지표에서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사회문화적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을 토대로 지표의 이론적 틀로 삼고 지표의 영역이나 지표 구성을 하였다. 전문가회의에서 생태체계이론에 중간체계에서의 만족도는 아이들의 행복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들이 있어 관계영역에서 중간체계 부분을 삭제하였다. 중간체계는 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기 보다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중간체계의 역할은 미시와 거시체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조건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 교사 만족도를 청소년에게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의 영향을 중재하는 것이 많다.

최종적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3차년도) 지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관계영역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보호자)관계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 관계 만족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직접적 관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간접적 관계 일반신뢰도(우리 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정부), 가족간의 대화시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등 총 1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주관적웰빙 영역에서는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테모니아 등 총 3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건강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아침식사율,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BMI, 인터넷 중독률, 질병유무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교육영역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액, 교과과정 만족도, 학교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진로교육만족도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안전영역에서는 지역사회시설안전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시설 안전도, 학교폭력 발생률,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범죄 안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청소년 교통사고사상률, 청소년범죄피해율, 청소년안전사고 사망률 등 총 1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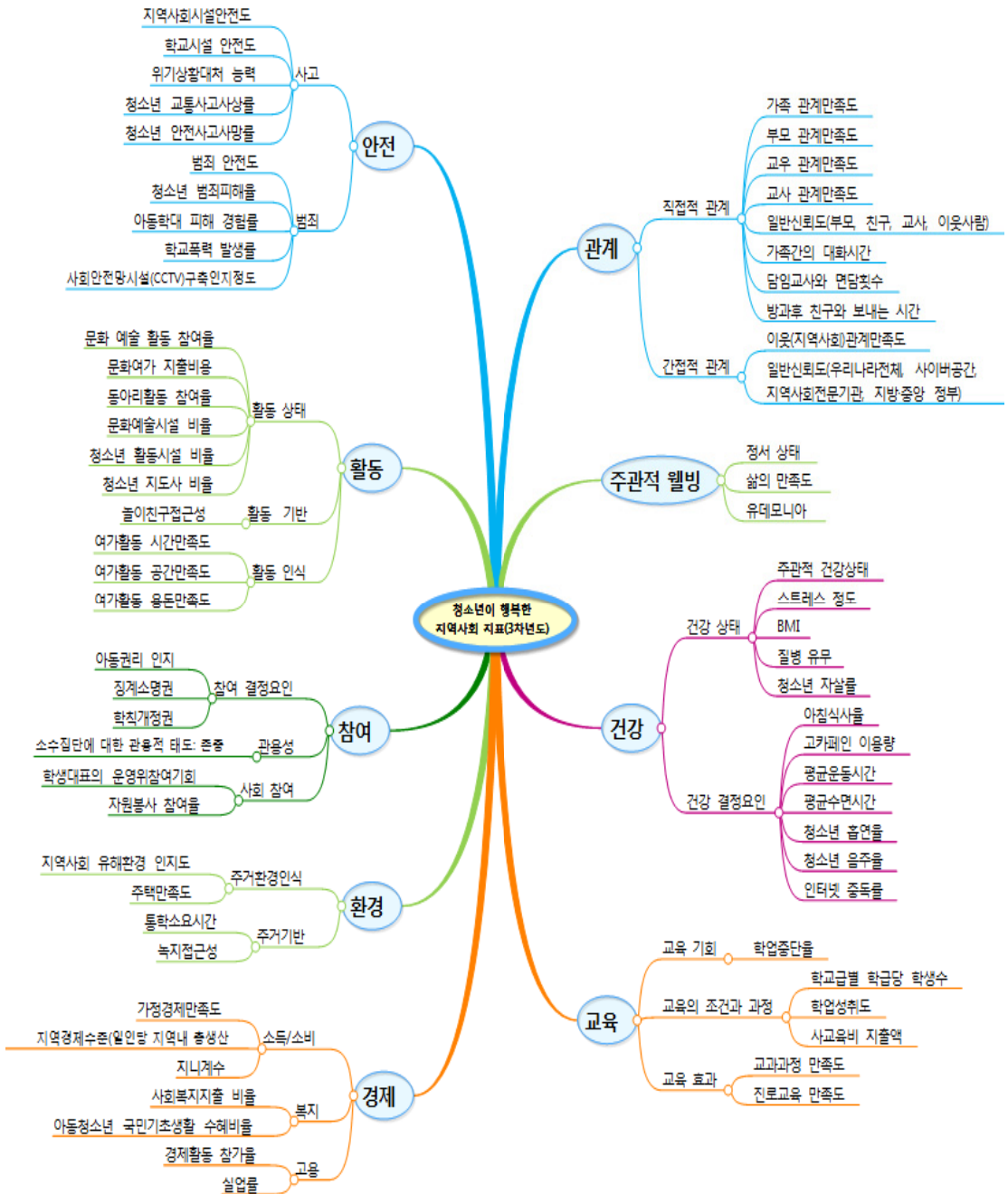
활동영역에서는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여가활동공간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놀이친구 접근성,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예술시설 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 지도사 비율,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등 총 1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참여영역에서는 아동권리 인지,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자원봉사 참여율,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환경영역에서는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주택만족도, 통학소요시간, 녹지접근성 등 총 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경제영역에서는 가정경제만족도, 실업률, 지니계수, 지역경제수준, 사회복지지출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국민기초생활수혜비율 등 총 7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3차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는 9개 영역 68개의 항목(객관지표 37개, 주관지표 31개)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II-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3차년도)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사 개요 및 행복 결정 요인 분석

1) 조사 개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성되는데 주관적 지표조사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다. 2015년 3차 년도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0,783명 청소년과 교사 361명, 학부모 2,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각종 사회 및 행정통계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지표들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통계자료원의 행정통계, 행정기관의 내부자료 및 원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표 II-1 청소년 행복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3차 년도)			
문헌연구		•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구성요소 도출	
평가지표 예비 문항 구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의 2차 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내용타당도 검증(델파이 조사)		• 2차 년도(2014년)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총 1회에 걸쳐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OECD 지표선정기준과 CIW 지표분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표의 적합도 및 지표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 타당도의 재검점 및 지표 체계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표를 선정	
본 조사	조사 모집 단	청소년조사	전국 17개 시도의 초4~고3 재학생 전체
		교사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전체(권역별·학교별 비례할당)
		학부모	해당학생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권역별·학교별 비례할당)
	최종 표집	청소년	10,783명
		교사	361명
		학부모	2,349명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3차 년도)			
본 조 사	조사 방법	청소년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교사	1:1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학부모	학생을 통한 유치조사
	지표	지표영역	- 경제영역, 건강영역, 안전영역, 교육영역, 관계영역, 활동영역, 참여영역, 주관적웰빙 영역, 환경영역 등 총 9개 영역 - 최종지표수 68개(객관지표 37개, 주관지표 31개)
		지표분석방법	z-score/가중치 적용 안함
		청소년, 학부모, 교사 조사 활용	- 주관지표 문항별 청소년·학부모·교사 인식차이 비교 - 주관·객관지표 지역별 비교 - 객관지표 5년간 시계열 비교
		기타	- 영역별 각 지역의 지수비교 - 지역별 각 영역의 지수비교

2)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결정요인³⁾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의 개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표의 개발과 측정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비록 행복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연구자들 간 시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 어렵지만,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한 정도와 상당히 유사한 관계임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

$$y_j = \alpha + C_j\beta + A_j\gamma + \sum_k^{16} \zeta_k region_{k,j} + \epsilon_j$$

여기서, 종속변수는 0점(매우 불만족)에서 10점(매우 만족)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며, 설명변수는 해당 학생의 성별, 연령, 외향적인 성격의 정도, 질병 유무, 친부모 동거 여부, 부모의 직업 유무, 학급 내 성적, 자가 주택 여부, 종교 유무

3) 성윤숙, 홍성호(2015).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측정과 정책제언, 대전: 통계개발원 워크숍 자료집.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C_j), 개별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A_j), 그리고 개별 광역시도(k)에 대한 더미변수($region_{k,j}$)를 포함한다.

분석자료는 본 연구를 위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표본은 광역시도를 지리적 단위로 추출되었으며, 가중치를 포함한다. 실제 분석에 포함된 학생수는 10,503명에 해당한다.

(2) 분석결과

가. 개인의 특성

분석결과는 <표 II-2>과 <표 II-3>로 나뉘어져 보고된다. 먼저, <표 II-2>에는 개인의 특성들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제시하고, <표 II-3>는 <표 II-2>의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열과 학교급별 분석의 열들에 8개 영역별 만족도(11점 척도)가 설명변수로 추가된 모형의 추정결과에서 영역별 만족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의 차이만을 제시한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 첫 번째 열에서 제시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학생이 남학생이거나 연령이 적거나 외향적인 성격이거나 질병이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 두 번째 열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이를 선천적 질병과 후천적 질병 혹은 양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후천적인 경우가 선천적인 경우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열은 해당 학생의 가정환경과 종교 유무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친부모와 동거하거나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거나 학급 내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자가 주택 여부나 종교의 유무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기존의 성인 대상 연구결과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은 학교급별로 상이한 요인에 의해 혹은 동일한 요인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나타나지 않으며, 외향적 성격과 같은 기질에 의한 차이는 오히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친부모 동거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학급 내 성적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는 학교급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2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의 특성

	청소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0.231** (5.13)	0.231** (5.22)	0.219** (4.50)	0.013 (0.17)	0.204** (3.19)	0.443** (3.91)
연령	-0.204** (-14.87)	-0.204** (-14.80)	-0.168** (-14.34)	-0.149** (-3.64)	-0.149* (-2.64)	-0.177** (-4.33)
외향적인 성격	0.640** (32.52)	0.640** (32.69)	0.588** (33.00)	0.667** (15.17)	0.605** (16.72)	0.518** (15.46)
질병	-0.351** (-10.57)		-0.325** (-10.15)	-0.428** (-6.01)	-0.296* (-2.26)	-0.266* (-2.60)
선천적		-0.304** (-3.12)				
후천적		-0.377** (-7.50)				
선천적 + 후천적		0.482 (0.55)				
친부모 동거			0.37** (4.82)	0.578** (3.90)	0.256 (1.71)	0.366** (3.04)
부의 직업			0.028 (0.37)	-0.071 (-0.40)	0.108 (0.74)	-0.042 (-0.28)
모의 직업			-0.124* (-2.26)	-0.105 (-1.36)	-0.110 (-1.27)	-0.176* (-2.79)
학급 내 성적			0.369** (11.54)	0.309** (6.81)	0.384** (9.19)	0.387** (10.34)
자가 주택			-0.054 (-1.24)	-0.021 (-0.29)	-0.088 (-1.44)	-0.028 (-0.33)
종교			-0.011 (-0.41)	-0.028 (-0.33)	0.000 (0.00)	0.006 (0.09)
상수항	7.246** (35.51)	7.240** (35.36)	5.530** (28.59)	5.386** (11.91)	5.331** (6.10)	5.608** (7.37)
Adj. R2	0.1685	0.1685	0.1994	0.1532	0.1449	0.1250
관측수	10,503	10,503	10,503	3,135	3,381	3,987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광역시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되며, 표본추출의 가중치가 분석에 적용됨. 모든 회귀식에 개별 광역시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음

*p<.05, **p<.01

나. 영역별 중요성

청소년 관련 모든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청소년의 행복증진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예산제약을 전제로 영역별 만족도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간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거시적인 정책방향 혹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은 특정의 미시적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 <II- 3>는 <표 II- 2>의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열 혹은 학교급별 분석에 대한 열에 8개 영역에 대한 개별 영역의 만족도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8개 영역 가운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보다 중요함을 함축한다. 특히, 교육영역 만족도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관계영역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영역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II-3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 관계

청소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반적인 만족도				
관계	0.238** (22.63)	0.301** (12.36)	0.243** (8.30)	0.203** (10.61)
건강	0.082** (6.28)	0.048* (2.56)	0.084** (8.22)	0.101** (4.16)
교육	0.292** (16.44)	0.225** (7.17)	0.245** (10.21)	0.362** (27.02)
안전	0.105** (6.93)	0.149** (4.87)	0.112** (3.38)	0.070** (3.42)
참여	0.037** (7.49)	0.030+ (2.12)	0.042* (2.57)	0.040** (3.15)
활동	0.113** (9.92)	0.089** (5.42)	0.151** (9.01)	0.101** (3.88)
경제	0.112** (9.23)	0.082** (3.37)	0.120** (4.98)	0.128** (5.93)
환경	0.014 (1.13)	0.034 (1.68)	-0.001 (-0.07)	0.014 (0.79)

	청소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상수항	-0.327+ (-1.92)	0.041 (0.10)	-0.824+ (-1.86)	-0.359 (-0.48)
Adj. R2	0.5825	0.5650	0.5589	0.5397
관측수	10,503	3,135	3,381	3,987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광역시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되며, 표본추출의 가중치가 분석에 적용됨. 모든 회귀식에 개별 광역시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함께 개인의 특성들—성별, 연령, 성격, 질병 유무, 친부모 동거 여부, 부모의 직업 유무, 학급 내 성적, 자가 주택 여부, 종교 유무—를 포함하고 있음.

*p<.05, **p<.01

반면,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학교급 간 큰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영역에 비해 관계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 이 두 영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관계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영역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나 이러한 관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안전영역의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낸다.

다. 영역별 만족도의 결정요인

<표 II- 4>는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음의 회귀식에 대한 추정결과를

$$\text{제시한다 : } y_j = \alpha + C_j\beta + \sum_k^{16} \zeta_k \text{region}_{k,j} + \epsilon_j$$

여기서, 종속변수는 개별 영역에 대한 11점 척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낸다.

먼저, 분석결과는 설문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다방면에서 확인한다. 이를테면, 질병이 있는 경우는 8개 영역 가운데 건강영역에서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낮춤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일수록 경제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타 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보다 크게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학생의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본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의 정도’에 의해 측정이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질병의 유무와 친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표 II-4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남학생	0.272** (10.40)	0.258** (6.73)	0.142** (3.18)	0.223** (5.15)	0.116* (2.20)	0.381** (7.26)	0.053 (1.26)	0.027 (0.64)
연령	-0.074** (-8.51)	-0.117** (-8.88)	-0.168** (-17.05)	-0.175** (-18.08)	-0.331** (-19.42)	-0.300** (-29.32)	-0.223** (-21.20)	-0.193** (-16.63)
외향적인 성격	0.923** (71.16)	0.715** (37.85)	0.728** (38.63)	0.565** (41.78)	0.500** (24.27)	0.589** (24.22)	0.477** (23.50)	0.525** (27.12)
질병	-0.273** (-5.39)	-0.978** (-14.63)	-0.325** (-5.51)	-0.406** (-9.02)	-0.445** (-8.71)	-0.347** (-9.57)	-0.273** (-4.64)	-0.386** (-6.04)
친부모 동거	0.275** (3.42)	0.253* (2.18)	0.301** (3.36)	0.235** (3.86)	0.115 (1.25)	0.107 (1.43)	0.573** (6.37)	0.324** (3.98)
부의 직업	0.030 (0.43)	0.056 (0.47)	-0.006 (-0.07)	0.055 (0.86)	0.080 (0.66)	0.093 (1.11)	0.585** (4.95)	0.148 (1.56)
모의 직업	-0.066+ (-2.11)	-0.005 (-0.12)	-0.143** (-4.74)	-0.041 (-1.33)	-0.081+ (-2.11)	-0.081+ (-1.78)	-0.112+ (-1.90)	-0.095 (-1.37)
학급 내 성적	0.193** (9.25)	0.256** (17.24)	0.329** (9.91)	0.211** (11.01)	0.119** (3.55)	0.160** (5.87)	0.286** (22.12)	0.213** (7.75)
자가 주택	0.045 (0.98)	0.035 (0.97)	0.035 (0.98)	0.022 (0.61)	-0.101+ (-2.00)	-0.068 (-1.51)	0.500** (17.59)	0.210** (4.86)
종교	-0.050 (-1.43)	0.015 (0.44)	-0.005 (-0.19)	-0.008 (-0.24)	0.004 (0.11)	0.030 (0.82)	-0.135** (-3.60)	-0.014 (-0.31)
상수항	4.208** (25.10)	5.290** (20.52)	5.583** (29.65)	6.634** (35.25)	8.437** (25.11)	8.206** (47.25)	6.818** (26.96)	6.506** (27.38)
Adj. R2	0.2959	0.2163	0.2431	0.2053	0.1971	0.2142	0.2178	0.1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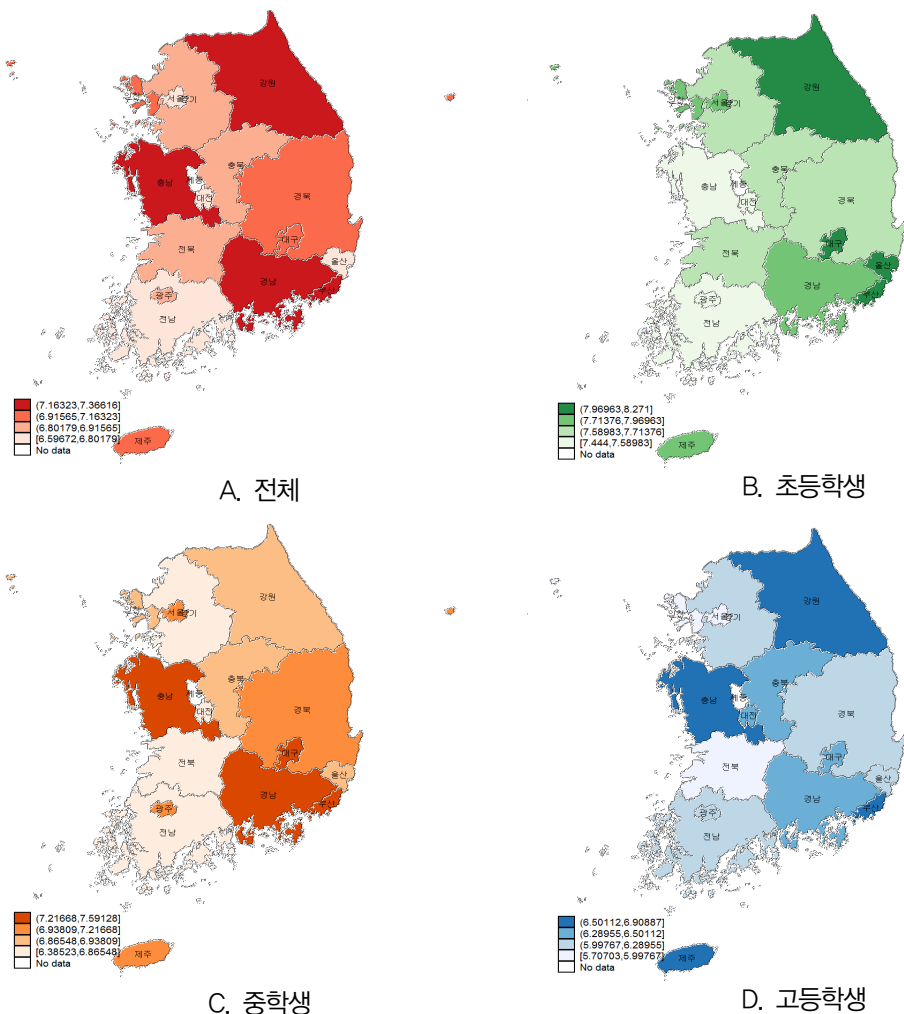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광역시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되며, 표본추출의 가중치가 분석에 적용됨. 모든 회귀식에 개별 광역시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음. 분석에 포함된 학생수는 10,503명에 해당함.

*p<.05, **p<.01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수 산출

1) 삶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부산, 강원과 충남, 경남과 제주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전남,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난다.⁴⁾



【그림 II-2】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4)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설문조사에서 0점(매우 불만족)에서 10점(매우 만족)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령기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강원, 대구, 부산, 울산, 등의 순으로 높고, 광주, 전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산, 대구와 충남, 경남, 경북 등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대전과 전남, 경기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제주, 충남, 부산 등에서 6점대의 만족도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I-5 학교급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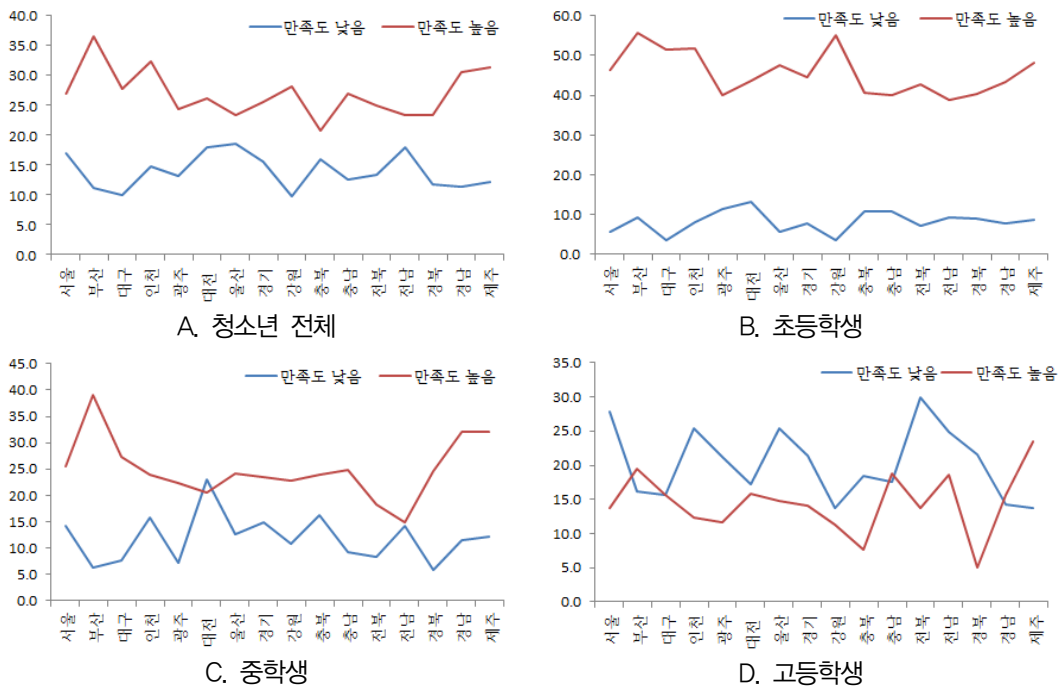
지역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서울	6.80	7.89	6.95	5.86
부산	7.37	8.15	7.59	6.55
대구	7.16	8.21	7.29	6.49
인천	7.06	7.87	6.88	5.89
광주	6.82	7.44	7.09	5.91
대전	6.80	7.56	6.39	6.48
울산	6.69	8.05	6.92	6.13
경기	6.80	7.69	6.80	6.19
강원	7.17	8.27	6.93	6.51
충북	6.84	7.62	6.90	6.39
충남	7.17	7.56	7.29	6.74
전북	6.82	7.65	6.85	5.71
전남	6.60	7.50	6.39	6.18
경북	6.99	7.67	7.18	6.09
경남	7.16	7.76	7.25	6.46
제주	7.16	7.73	7.16	6.91

* 주: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0”점(매우 불만족)에서 “10”점(매우 만족)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됨.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집단(9점 혹은 10점)과 그렇지 않은 집단(0~4점)의 비중 간 차이는 학령기가 높아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만족하는 비중이 모든 지역에 걸쳐 만족하지 못하는

비중에 비해 높으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이 두 비중 간 격차가 좁혀지며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는 제주, 부산, 충남에서만 고등학생 가운데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이 그렇지 않은 비중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전북, 경북, 인천, 서울, 울산 등에서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의 비중 대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중학생에 있어서도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비중이 23.0%로 만족하는 비중인 20.5%에 비해 높은 유일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그림 II-3】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0~4점인 경우의 비중과 9~10점인 경우의 비중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주관적 웰빙) 이외의 개별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영역 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관계영역에서는 부산(7.81점), 충남(7.66점), 대구(7.61점)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전북(7.05점), 전남(7.15점), 충북(7.18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⁵⁾

5) 관계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건강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국의 수치가 7.33점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7.67점을 기록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6.84점을 나타내는 전남으로 조사된다.⁶⁾ 전국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을 비롯해 충남(7.54점), 인천(7.52점), 대구(7.50점) 등을 포함한다.

교육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부산(7.57점), 충남(7.34점), 인천(7.29점)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⁷⁾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역은 전북으로 6.62점의 평균적인 만족도를 나타내고 이와 더불어 전남(6.66점), 울산(6.75점), 충북(6.87점)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보인다.

안전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부산에서 7.5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 7.51점, 인천 7.27점, 강원 7.22점 등을 포함한다.⁸⁾ 한편,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6.68점의 평균 수치를 나타낸 전북에 해당하며 충북(6.76점), 전남(6.80점), 경기(6.91점)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참여영역에서의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개 영역에서 가장 낮은 6.07점에 해당한다. 지역적으로는 울산에서 5.56점으로 가장 낮고 이와 더불어 강원과 충북에서 5.83점, 경기에서 5.94점으로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⁹⁾ 반면에,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6.60점), 인천(6.47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산은 간접적 관계를 구성하는 두 세부 지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활동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이 6.86점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7.17점을 기록하는 반면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울산으로 6.35점의 만족도를 보인다.¹⁰⁾

경제영역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남(7.66점), 제주(7.57점), 부산(7.56점) 등을 포함하고,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83점), 충북(6.96점), 경기(7.22점), 대구(7.25점), 광주(7.26점) 등을 포함한다.¹¹⁾ 한편, 전국 평균 만족도는 7.32점으로 나타난다.

환경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제주(7.18점), 부산(7.10점), 대전(6.91점) 등의 순으로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6.44점), 전북(6.46점), 충북(6.50점) 등을 포함한다.¹²⁾

6) 건강영역에서의 만족도는 “또래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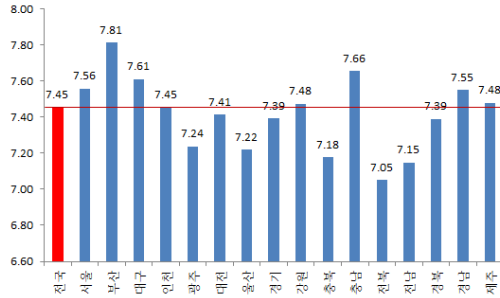
7)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8) 안전영역에서의 만족도는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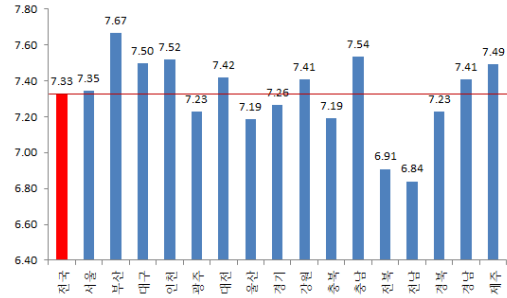
9) 참여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10) 활동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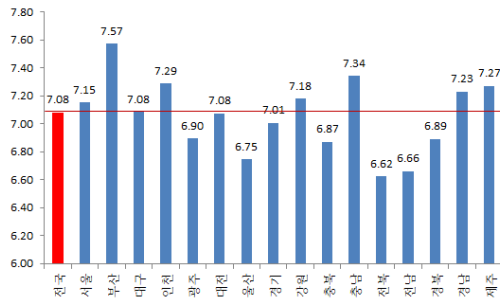
11) 경제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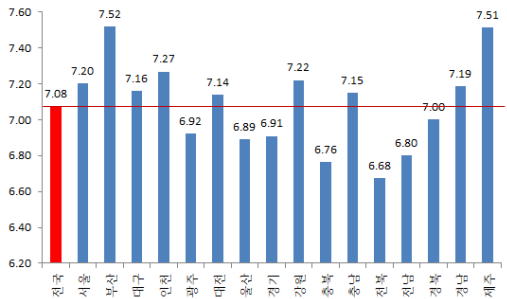
A.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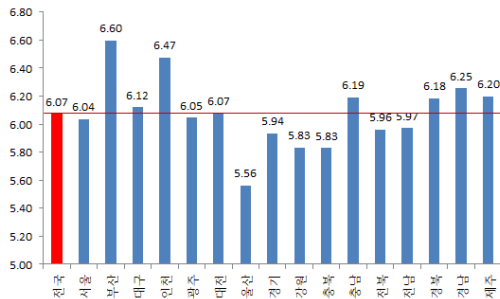
B.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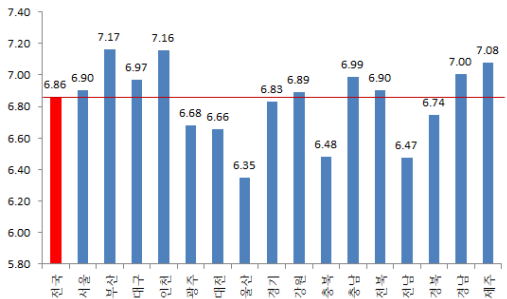
C.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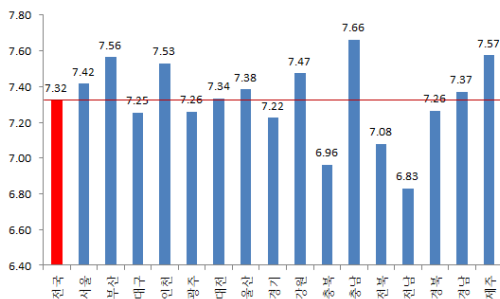
D.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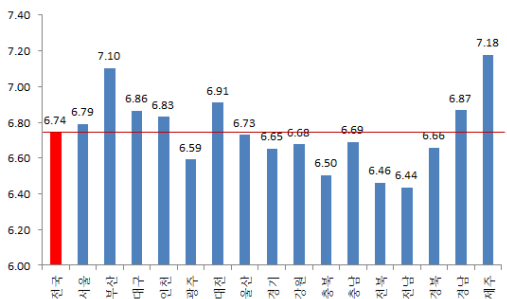
E. 참여



F. 활동



G. 경제



H.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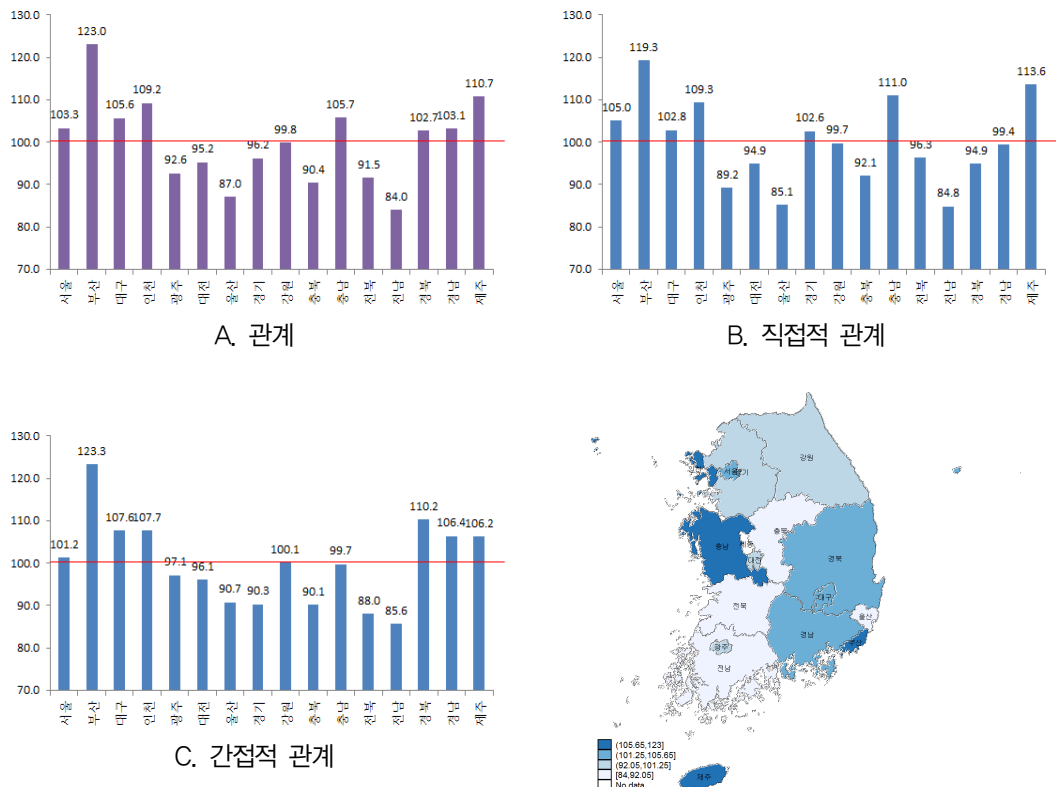
【그림 II-4】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

12) 환경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2) 지수화

(1) 영역별 지수

청소년의 행복은 68개 세부 지표(변수)를 포함하며 이를 이용해 23개의 상위 지표를 측정한 후에 다시 이를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영역지수를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지수를 측정한다. 측정단위와 분산이 상이한 세부 지표들을 이용한 상위 지표, 영역지수, 그리고 종합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개별 세부 지표에 대한 표준화 과정-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변수로 전환-과 함께 세부 지표들 간, 상위 지표들 간, 그리고 영역 간 가중치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 지표, 영역지수, 그리고 종합지수를 측정함에 있어 각각 세부 지표들 간, 상위 지표들 간, 그리고 영역지수들 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그림 II-5】 관계영역

관계영역은 두 개의 상위 지표-직접적 관계와 간접적 관계-로 구성된다. 전자는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부모·친구·교사·이웃에 대한 신뢰도, 가족 간의 대화시간, 선생님과의 면담횟수,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의해 측정되고, 후자는 이웃관계 만족도, 우리나라 전체·사이버 공간·지역사회 전문기관·지방정부·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 측정된다.

직접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산, 제주, 충남, 인천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울산, 전남, 광주, 충북 등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간접적 관계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수치가 높은 반면에 전남, 울산, 전북 등에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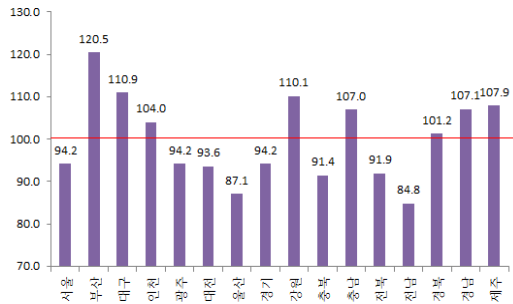
관계영역에 대한 지수는 부산, 제주, 인천 등에서 높은 반면 전남, 울산, 광주, 충북 등에서 낮게 나타난다.

주관적 웰빙영역을 구성하는 상위 지표는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를 포함한다. 정서상태는 최근에 느낀 즐거운 감정, 편안한 감정, 불안한 감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행복한 감정에 의해 측정되며, 유데모니아는 삶의 가치에 의해 측정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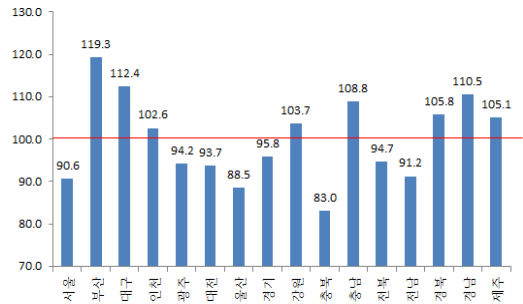
정서상태는 부산, 대구, 경남, 충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충북, 울산, 서울 등에서 낮게 나타난다. 삶의 만족도는 부산, 충남, 강원 등에서 높고, 전남, 울산, 대전 등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데모니아는 부산, 강원, 대구에서 높은 반면에 전남, 울산, 전북에서 낮게 나타난다.

주관적 웰빙영역에 대한 지수는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경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남, 울산, 충북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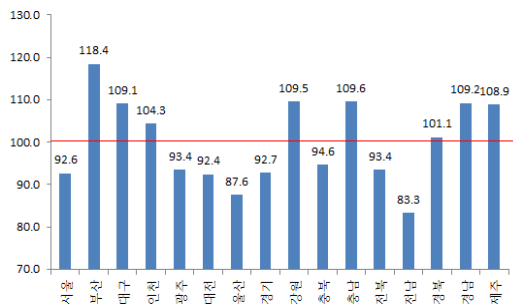
13) 삶의 가치에 의한 유데모니아의 측정은 OECD의 권고를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설문에서는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로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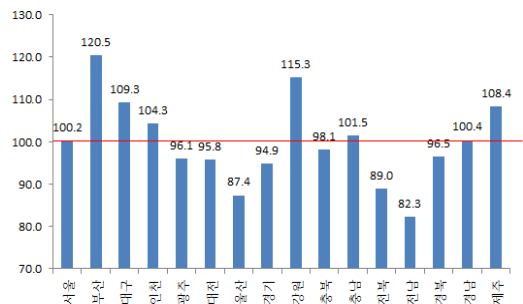
A. 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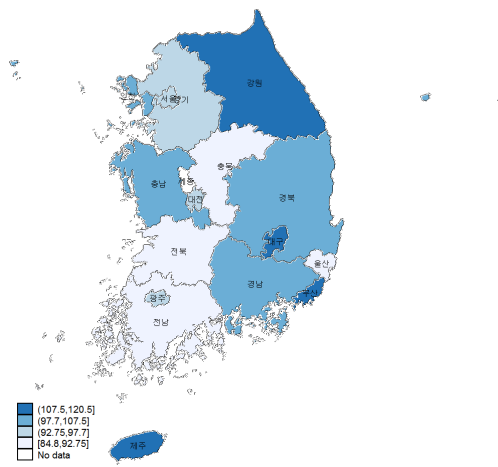
B. 정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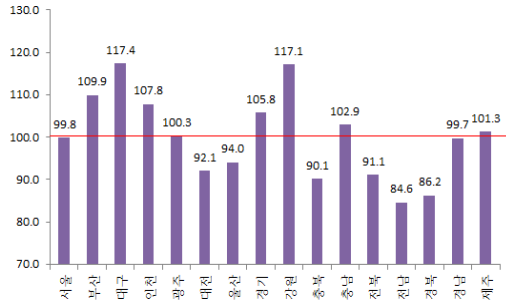
C.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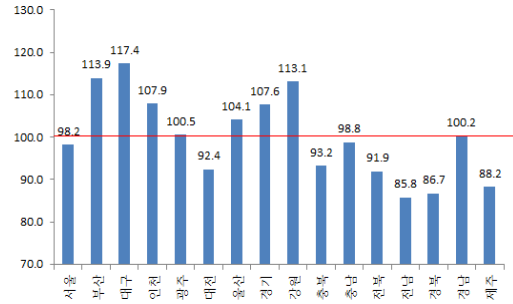
D. 유데모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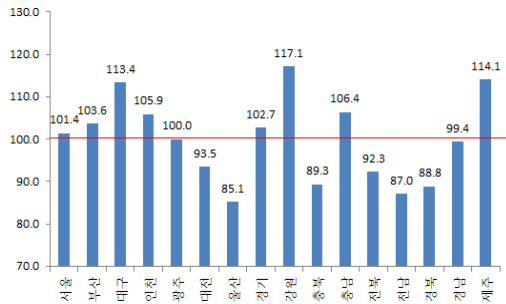
【그림 II-6】 주관적 웰빙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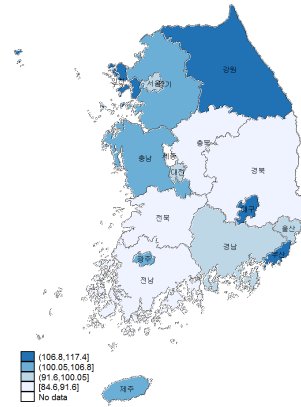
A. 건강



B. 건강상태



C. 건강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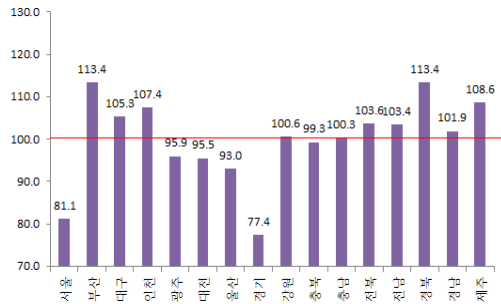


【그림 II-7】 건강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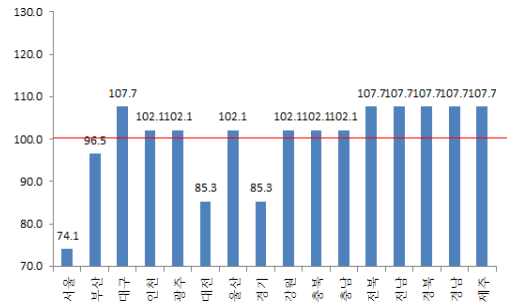
건강영역을 구성하는 상위 지표는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정도, BMI, 질병 유무, 청소년 자살률에 의해 측정되고, 후자는 아침식사율,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인터넷 중독률에 의해 측정된다.

건강상태는 대구, 부산, 강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전남과 경북,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대구와 부산은 낮은 청소년 자살률과 높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강원은 스트레스 정도가 최하위로 나타난다. 반면, 전남은 청소년 자살률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제주는 BMI가 전국 최상위에 해당한다. 건강결정요인은 강원, 대구, 제주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울산, 경북,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강원은 가장 낮은 청소년 흡연률과 음주율을 나타내고 대구는 가장 낮은 인터넷 중독률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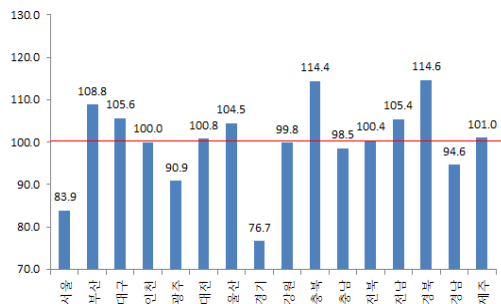
건강영역에 대한 지수는 대구, 강원, 부산, 인천 등의 순으로 높고, 경북, 전남, 충북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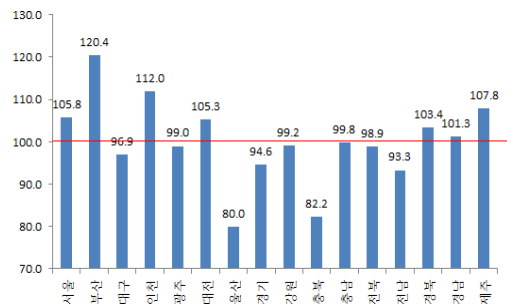
A.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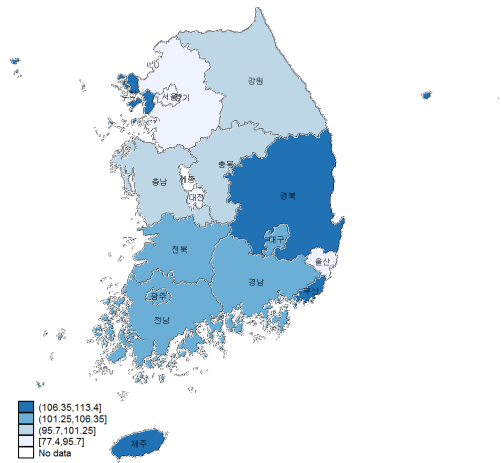
B. 교육기회



C. 교육의 조건과 과정



D. 교육효과



【그림 II-8】 교육영역

교육영역은 학업중단율로 측정되는 교육기회,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로 측정되는 교육의 조건과 과정, 그리고 교과과정 만족도와 진로교육 만족도로 구성되는 교육효과 이렇게 세 개의 상위 지표로 구성된다.

교육기회는 서울에서 특히 낮은 수치-낮은 교육기회는 높은 학업중단율을 의미하고 서울의 경우 1.3%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를 나타내고 대전과 경기(1.1%의 학업중단율), 부산(0.9%의 학업중단율) 등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기회를 나타낸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에서는 대구, 부산, 대전, 서울, 경북, 충북, 울산의 순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에, 경기, 강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난다. 대구는 학업성취도에서 최상위에 해당하고, 경기는 학급당 학생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교육효과는 부산, 인천, 제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울산, 충북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부산은 교과과정과 진로교육 각각에 대한 만족도에서 최상위에 해당하고, 울산은 교과과정 만족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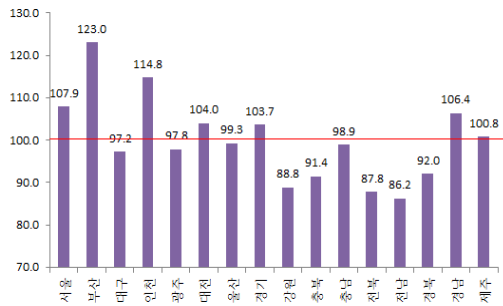
교육영역 전체적으로는 부산, 경북, 인천, 제주, 대구 등의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 경기에서 특히 낮고 울산과 충북 등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안전영역을 구성하는 상위 지표로는 사고와 범죄를 포함한다. 전자는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 능력,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로 구성되고, 후자는 범죄 안전도, 청소년 범죄피해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사회안전망 시설(CCTV) 구축 인지정도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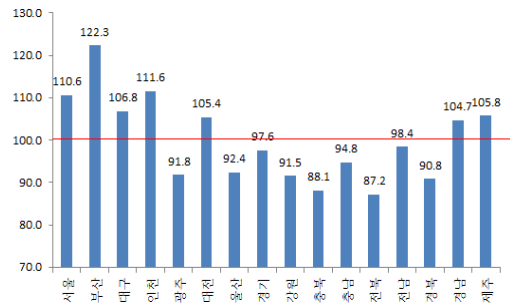
사고에 대한 지표는 부산, 인천, 서울 등의 순으로 높다. 부산의 경우, 지역사회 시설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도와 위기상황대처 능력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반면, 사고에 대한 지표의 수치가 낮은 지역은 전북, 충북, 경북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북은 학교시설 안전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범죄에 대한 지표는 부산, 인천, 경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전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부산은 서울과 더불어 범죄 안전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청소년 범죄피해율과 학교폭력 발생률에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전남은 청소년 범죄피해율에서 12.5로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고, 학교폭력 발생률에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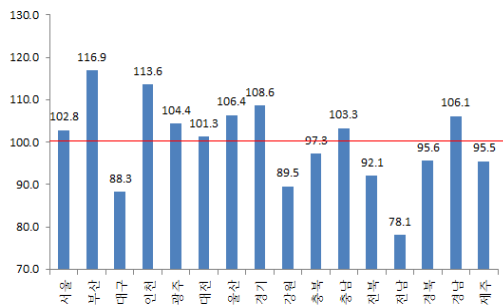
안전영역에 대한 지수는 부산, 인천, 서울 등의 순으로 타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전남, 전북, 강원에서 낮은 지수값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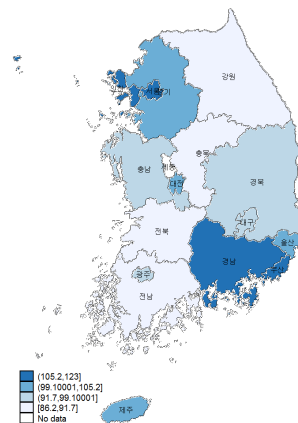
A. 안전



B. 사고



C.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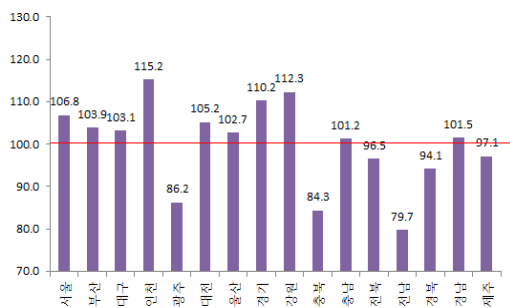


【그림 II-9】 안전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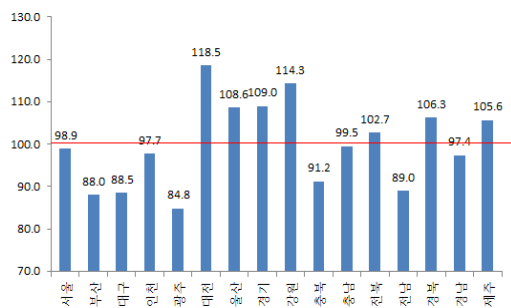
활동영역을 구성하는 상위 지표는 활동에 대한 상태, 기반, 인식을 포함한다. 활동상태는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 수,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을 세부 지표로 포함한다. 활동기반은 놀이친구접근성에 의해 측정되며, 활동인식은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시간, 공간, 용돈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측정된다.

먼저, 활동상태에 대한 지표값은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더불어 강원, 경기, 울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볼 수 있다. 대전의 경우, 문화예술활동 참여율과 동아리활동 참여율에서 각각 92.7%와 83.1%로 단연 높게 나타난다. 한편, 광주, 부산, 대구, 전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남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율과 문화여가 지출비용에서 전국의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시설 수에서는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는 등 세부 지표 간 대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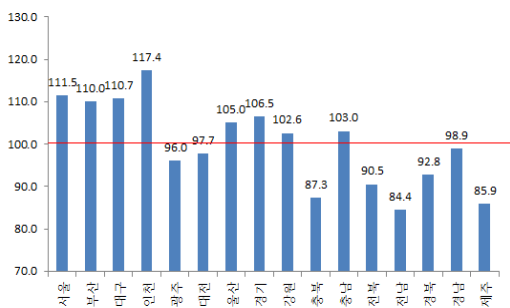
활동기반에 있어서는 인천,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우수하며, 전남, 제주, 충북, 전북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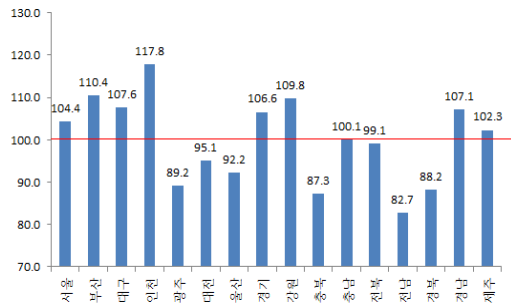
A.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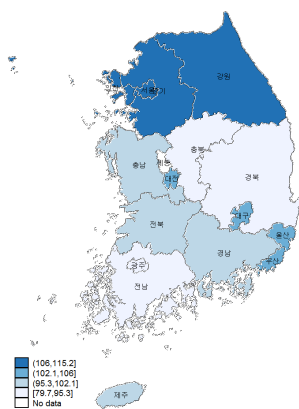
B. 활동상태



C. 활동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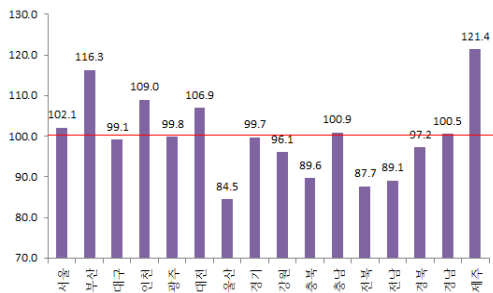
D. 활동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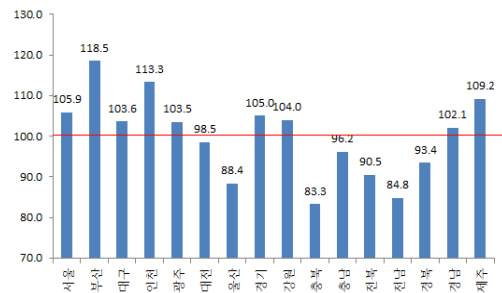
【그림 II -10】 활동영역

활동인식은 인천, 부산, 강원 등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인천의 경우, 여가활동공간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반면, 전남, 충북, 광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전남은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 만족도에서 매우 낮은 값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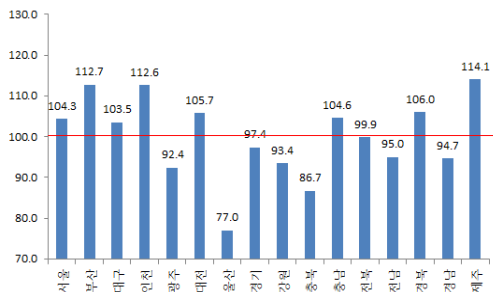
활동영역의 지수는 강원, 인천, 경기, 대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 전남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이와 더불어 광주와 충북이 역시 타 지역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의 수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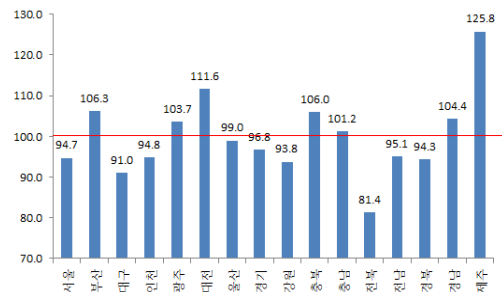
A.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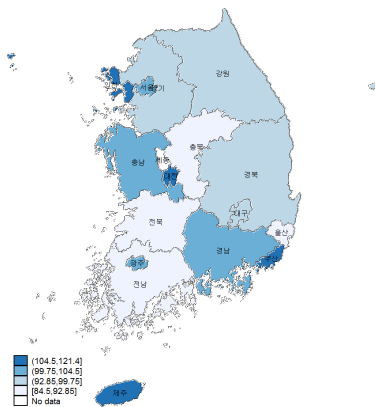
B. 참여결정요인



C. 관용성



D. 사회참여



【그림 II-11】 참여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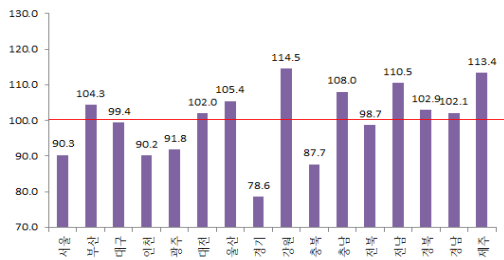
참여영역은 참여결정요인, 관용성, 사회참여의 상위 지표로 구성된다. 참여결정요인은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에 의해 측정되고, 관용성은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의해 측정되며, 사회참여는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와 자원봉사 참여율에 의해 측정된다.

참여결정요인은 부산, 인천,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 충북, 전남, 울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부산은 참여결정요인을 구성하는 세 개의 세부 지표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반면, 충북의 낮은 수치는 징계소명권과 학칙개정권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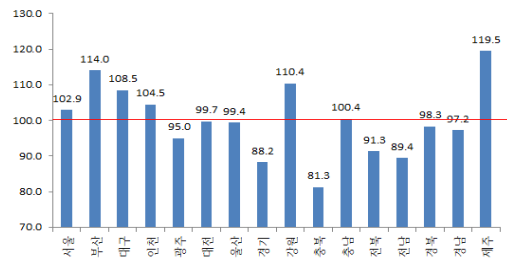
관용성은 제주, 부산, 인천 등에서 높은 반면, 울산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충북, 광주 역시 상대적으로 관용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사회참여는 제주에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이와 더불어 대전, 부산, 충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수치가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와 자원봉사 참여율 모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 타 지역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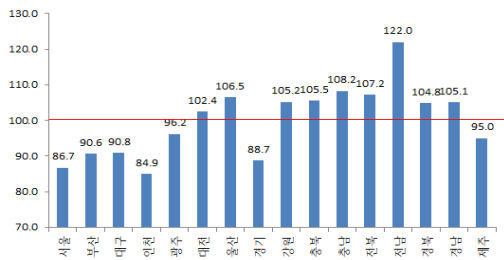
참여영역의 지수는 제주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산, 인천, 대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울산, 전북, 전남, 충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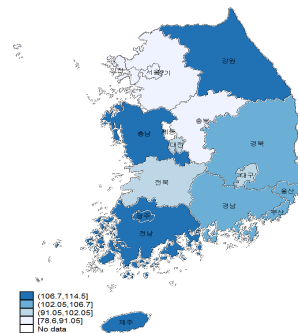
A. 환경



B. 주거환경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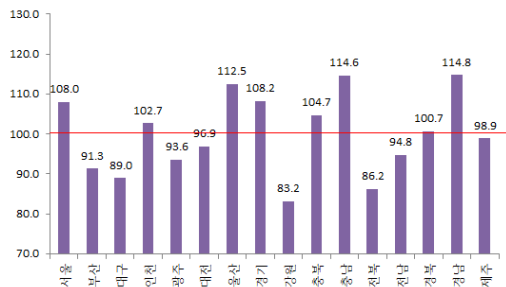
C. 주거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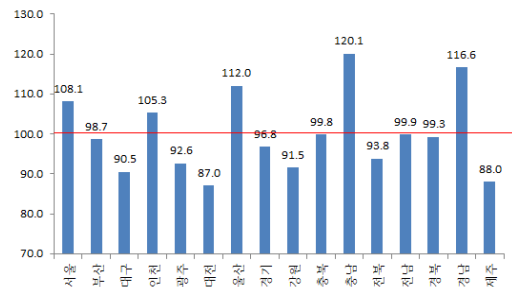
【그림 II-12】 환경영역

환경영역은 주거환경인식과 주거 기반으로 구분된 두 개의 상위 지표로 구성되며, 전자는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와 주택만족도를 포함하고 후자는 통학소요시간과 녹지접근성을 포함한다. 주거환경인식은 제주, 부산, 강원을 중심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주거 기반은 전남에서 단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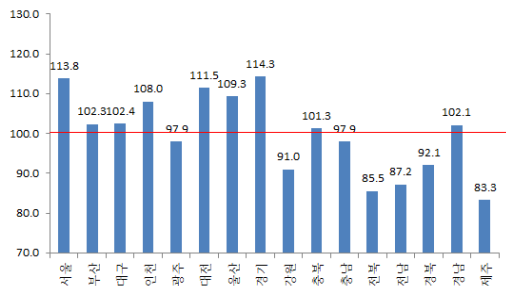
환경영역의 지수는 강원, 제주, 전남 등의 순으로 높으며, 경기, 충북, 인천, 서울, 광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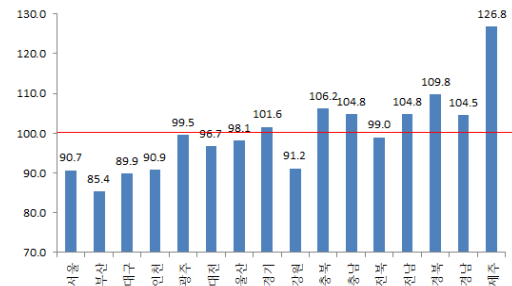
A.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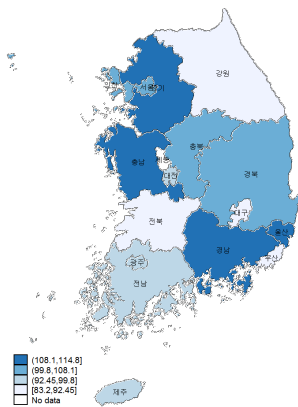
B. 소득/소비



C. 복지



D. 고용



【그림 II-13】 경제영역

경제영역은 소득/소비, 복지, 고용의 상위 지표로 구성된다. 소득/소비는 가정경제만족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의한 지역경제수준,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에 의해 측정된다. 복지는 사회복지지출비율과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에 의해 측정되고, 고용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에 의해 측정된다.

소득/소비에서는 충남, 경남, 울산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에, 대전, 제주, 대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충남과 경남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니계수를 지녀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있어 상대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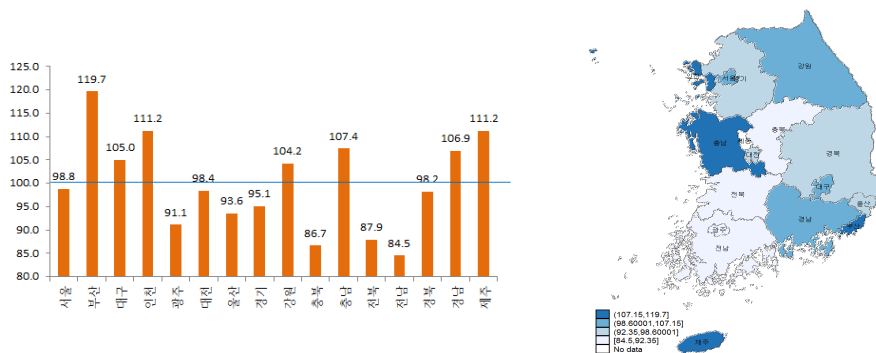
복지의 경우 경기, 서울, 대전, 울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한편, 제주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제주 이외에도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광주와 충남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고용에 대한 상위 지표는 제주에서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은 경북, 충북, 전남과 충남, 경남 등의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한편, 부산, 대구, 서울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영역에 대한 지수는 경남, 충남, 울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강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이와 더불어 전북, 대구, 부산이 역시 낮은 수치를 갖는 지역에 해당한다.

3) 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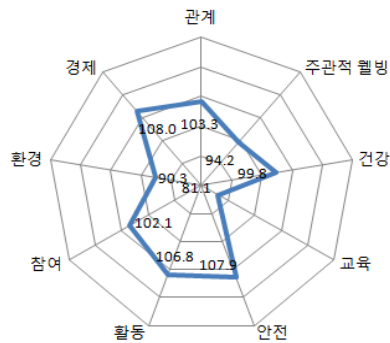
9개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지수는 부산, 인천과 제주, 충남, 경남, 대구 등의 순으로 높으며, 이들 지역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남, 충북, 전북, 광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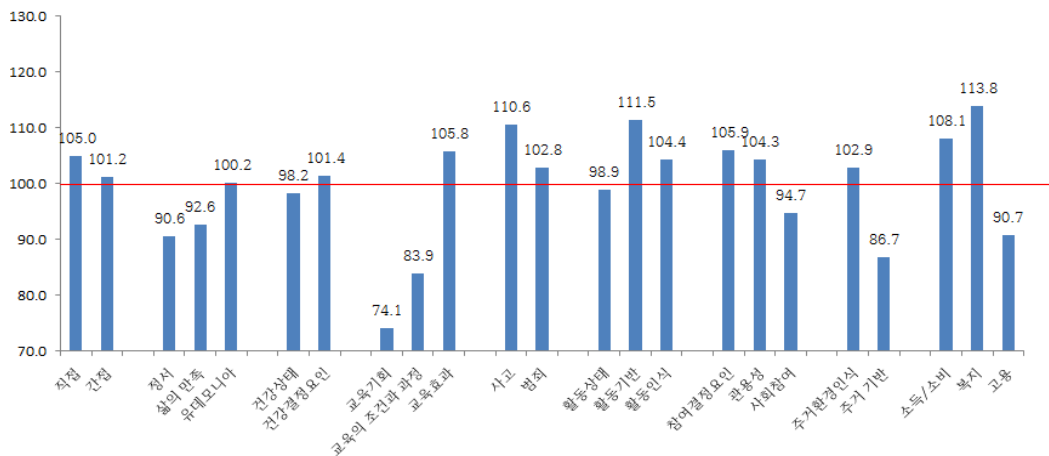
【그림 II-14】 종합지수

4) 지역별 지수

서울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별로는 경제, 안전, 관계, 활동, 참여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에 환경, 주관적 웰빙, 교육, 건강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영역들 간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지는 못하고 교육영역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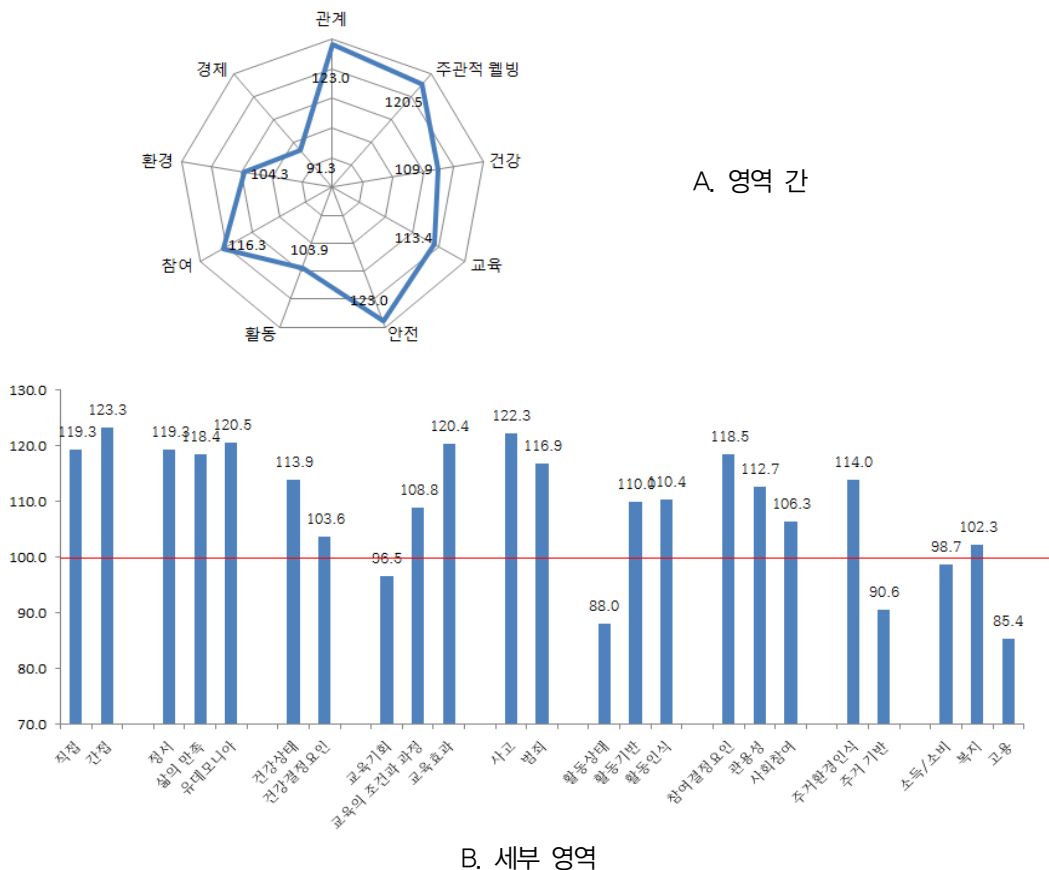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II-15】 서울 청소년 행복지수

영역별 상위 지표의 수치를 살펴보면, 관계영역에서는 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인 관계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유테모니아만이 전국 평균수준을 나타내고 정서와 삶의 만족은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영역에서는 건강상태의

수치가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결정요인은 전국의 평균치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영역에서는 교육기회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 향후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영역의 모두 상위 지표들은 관계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수치를 상회한다. 반면, 활동영역에서는 활동상태의 수치가 전국에 비해 다소 낮으며, 환경영역에서의 주거 기반과 경제영역에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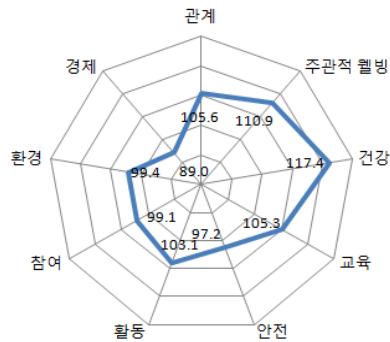


【그림 II-16】 부산 청소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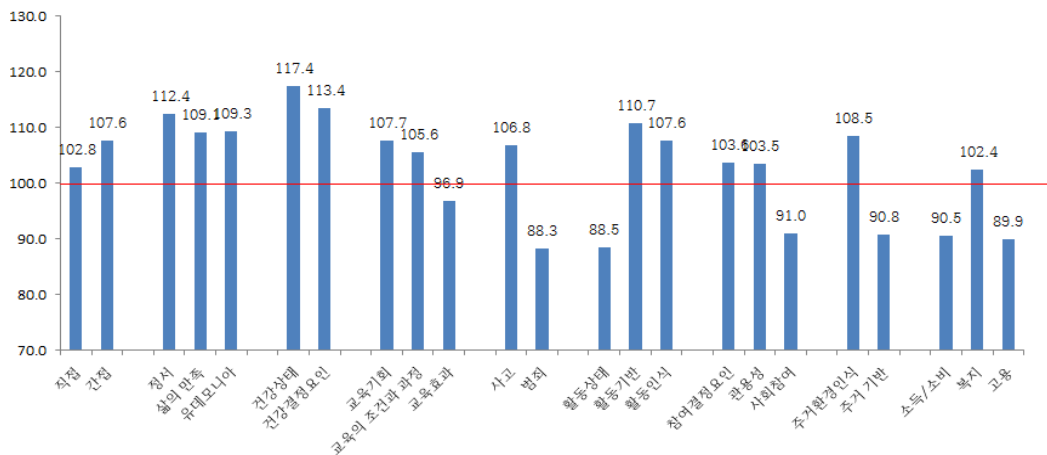
부산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9개 영역 가운데 경제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9개의 영역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관계, 안전,

주관적 웰빙영역에서의 수치는 타 지역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경제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에 영역들 간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 활동, 환경, 경제 이렇게 네 영역에서만 전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위 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영역의 경우 교육기회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활동영역에서는 활동상태가 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환경영역에서의 주거 기반이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영역에서는 고용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2014년 기준 58.6%로 강원 다음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 영역 간



B. 세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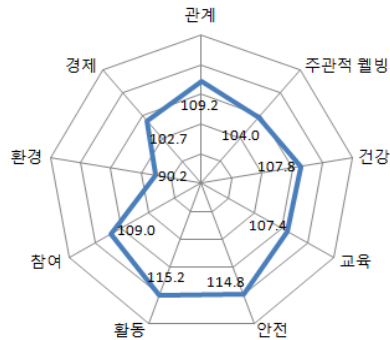
【그림 II-17】 대구 청소년 행복지수

대구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들 간 균형은 건강영역에서의 다소 높은 수치와 경제영역에서의 다소 낮은 수치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잘 이뤄져 있으나 경제, 안전, 활동, 그리고 참여영역의 수치가 전국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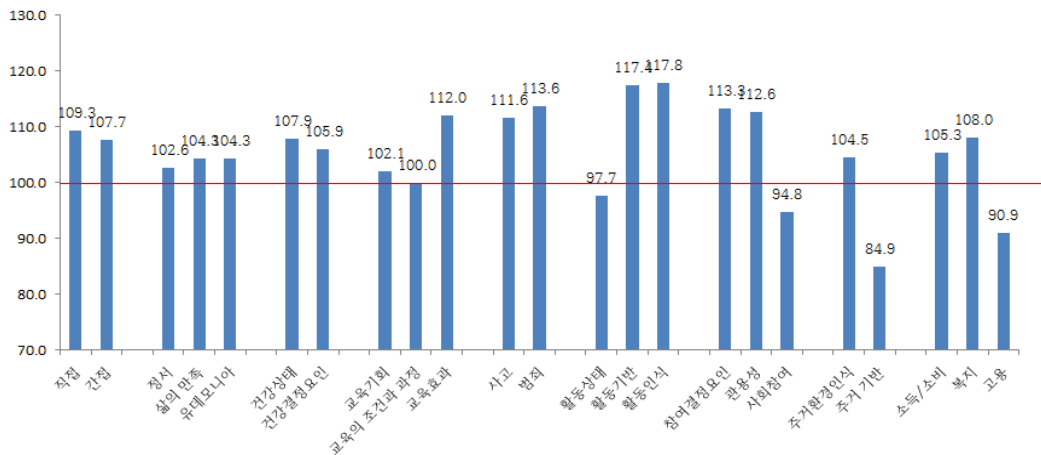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관계영역의 경우 직접적 관계에 비해 간접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세 개의 상위 지표 모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건강영역 역시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 모두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9개 영역 가운데 타 지역 대비 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분석된다. 한편, 교육영역에서는 교육효과가 전국의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제시된다. 안전영역에서는 사고에 대한 상위 지표가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함을 볼 수 있으나 범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참여영역의 사회참여와 환경영역의 주거 기반이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활동영역에서는 활동상태를 나타내는 상위 지표가 전국의 그것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경제영역 내 상위 지표 가운데 소득/소비와 고용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제주와 더불어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는 경제영역과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크게 낮은 환경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활동영역과 안전영역에서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환경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활동, 참여, 환경, 그리고 경제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에서는 개별 상위 지표의 수치가 각각의 전국 평균을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영역의 경우 고용에 대한 상위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가운데 인천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2014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7%의 실업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영역에서 사회참여의 낮은 지표값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2013년 기준 18.6%)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영역에서 주거 기반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긴 통학소요시간(37.1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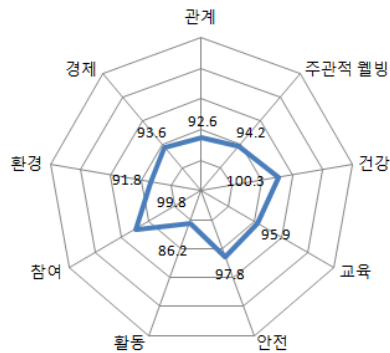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II-18】 인천 청소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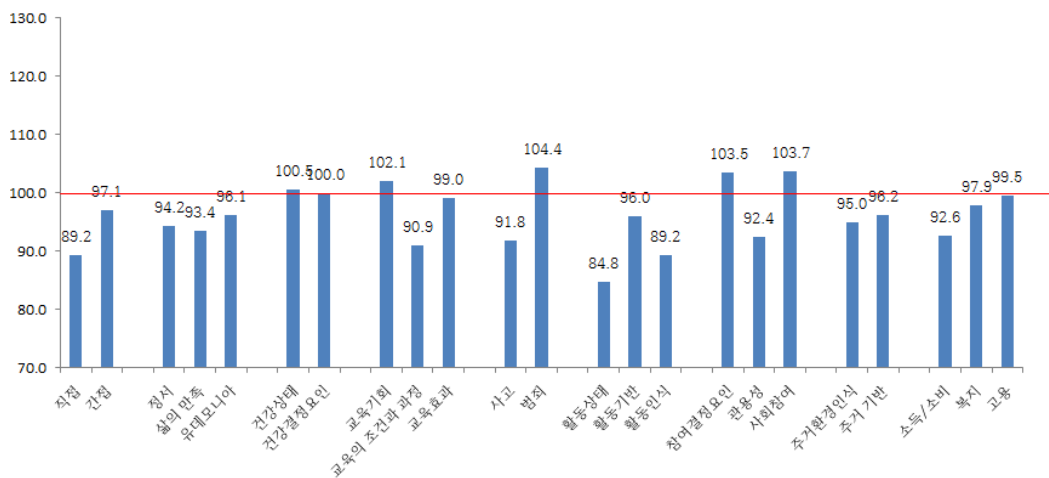
광주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건강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지수값을 나타내며, 활동영역에서 특히 타 지역 대비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청소년의 활동영역에서의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관계, 주관적 웰빙, 활동, 환경, 그리고 경제영역의 경우 이들에 속하는 상위 지표들 모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특히 관계영역에서 직접적인 관계와 활동영역에서의 활동상태는 현저하게 낮음을 볼 수 있다. 직접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교사관계 만족도와 교우관계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영역에서는 교육의 조건과 과정이 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안전영역에서는 사고, 참여영역에서는 관용성, 경제영역에서는 소득/소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활동영역 가운데 활동상태의 낮은 수치는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에서의 낮은 수치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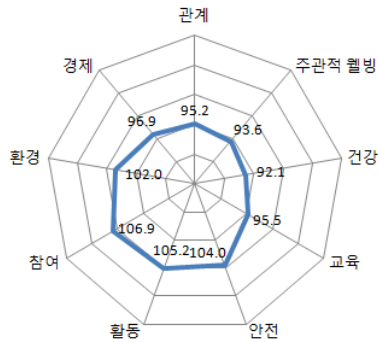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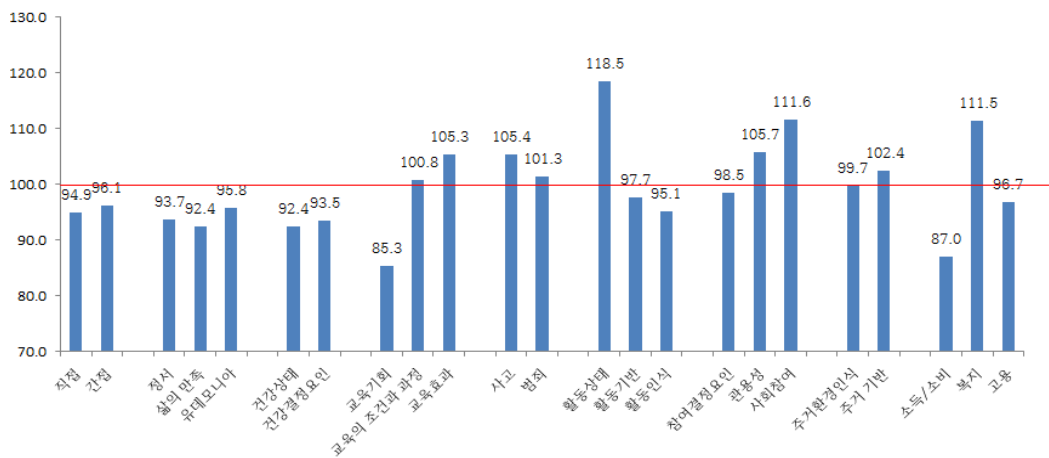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II-19】 광주 청소년 행복지수

대전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으며, 9개의 영역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개 영역-교육, 경제, 관계, 주관적 웰빙, 건강-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치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건강영역과 주관적 웰빙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으며 전체 영역과 더불어 이 두 영역에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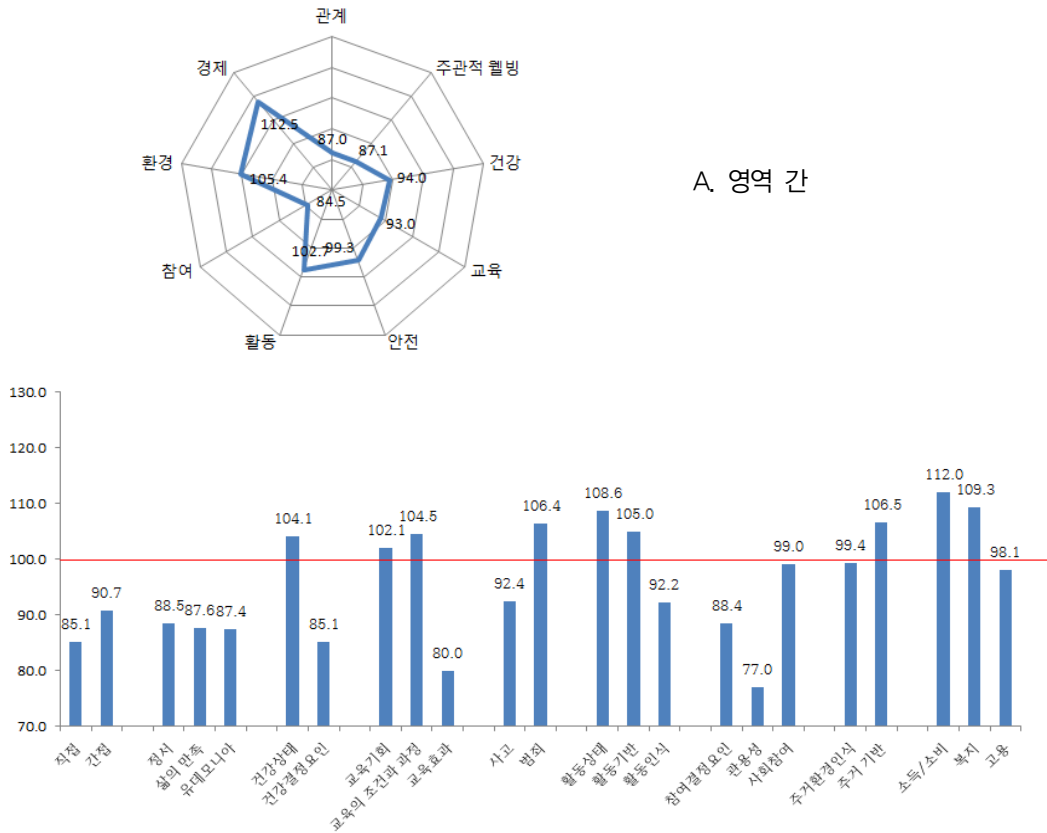
A. 영역 간



B. 세부 영역

【그림 II-20】 대전 청소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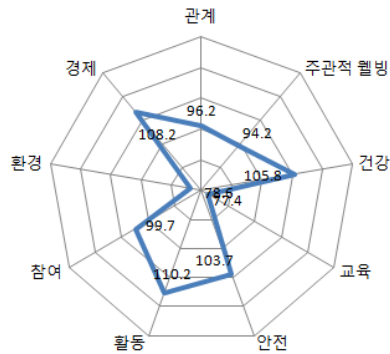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 안전, 활동, 참여, 환경, 그리고 경제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치를 갖는 상위 지표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영역에서 소득/소비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소득/소비의 낮은 수치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영역의 경우 교육기회가 두드러지게 낮은 수준에 해당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를 측정하는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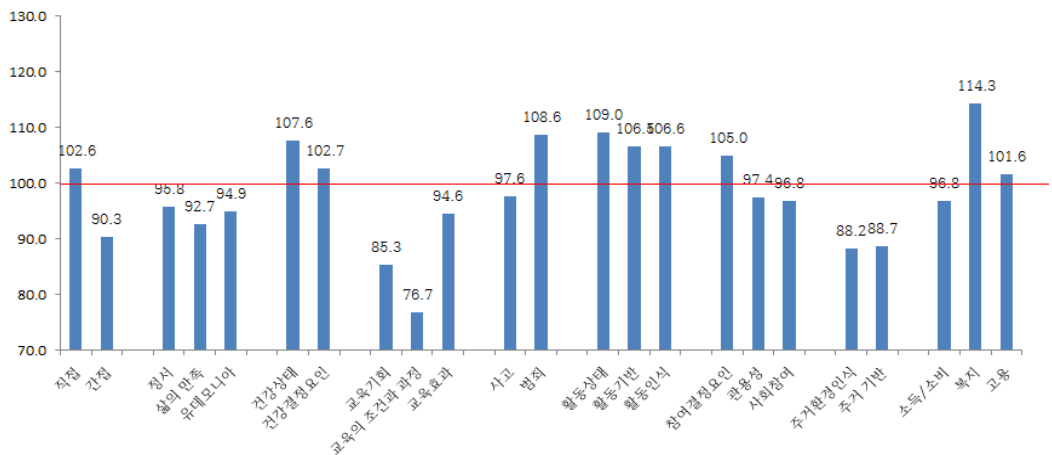
【그림 II-21】 울산 청소년 행복지수

울산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 환경, 그리고 활동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영역 모두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관계, 참여, 주관적 웰빙 등의 영역에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음을 볼 수 있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관계, 주관적 웰빙, 그리고 참여영역에서 상위 지표들 모두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교육영역에서의 교육효과와 참여영역의 관용성 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교육효과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교과과정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진로교육 만족도 역시 충북 다음으로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건강영역의 건강결정요인 역시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낮은 수준의 아침식사와 높은 수준의 고카페인 이용량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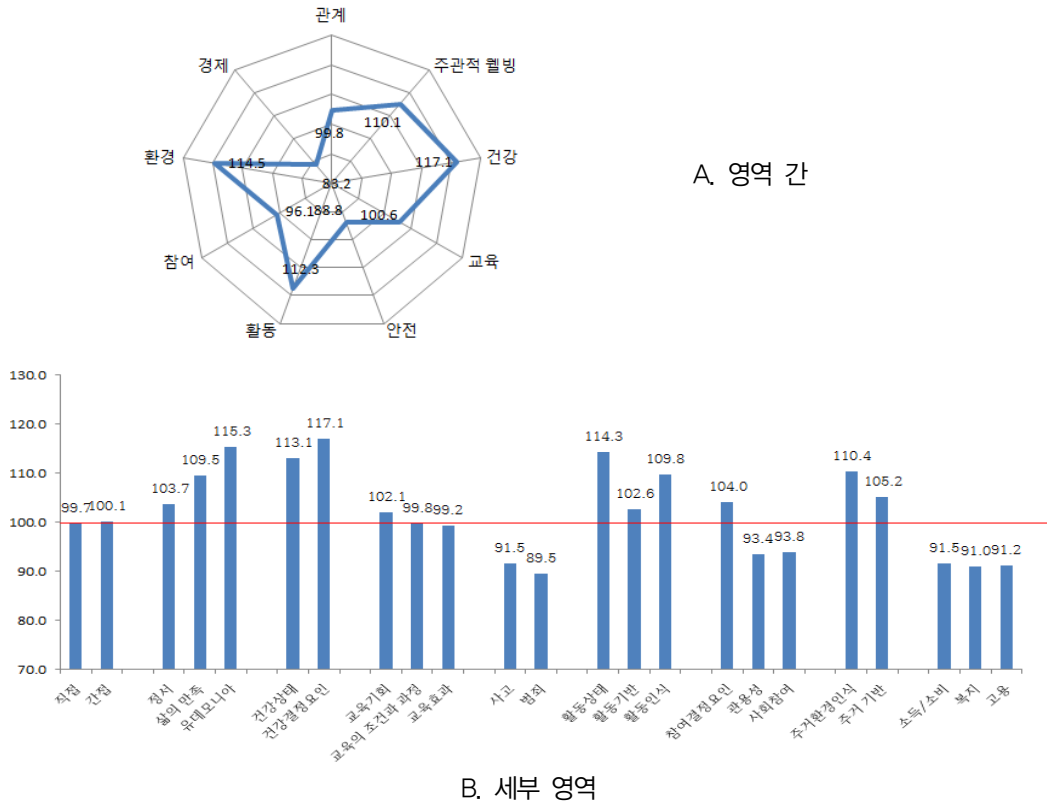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II-22】 경기 청소년 행복지수

경기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수준을 다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9개 영역들 가운데 5개 영역들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치를 하회할 뿐만 아니라 영역들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영역과 환경영역에서 각 영역별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이 외에도 주관적 웰빙과 관계영역에서의 수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주관적 웰빙, 교육, 그리고 환경영역에서 상위 지표들 모두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지닌다. 교육영역의 경우 교육기회는 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하며, 이는 학업중단율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교육영역에서 교육의 조건과 과정 역시 현저하게 낮으며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인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 가운데 학업성취도가 이러한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영역에서의 낮은 수치는 이를 구성하는 네 개의 세부 지표들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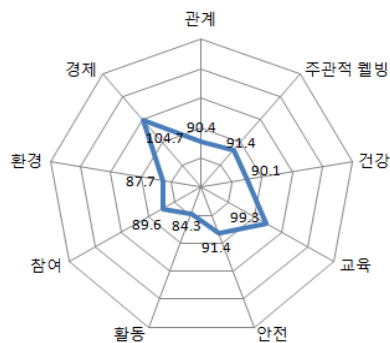


【그림 II-23】 강원 청소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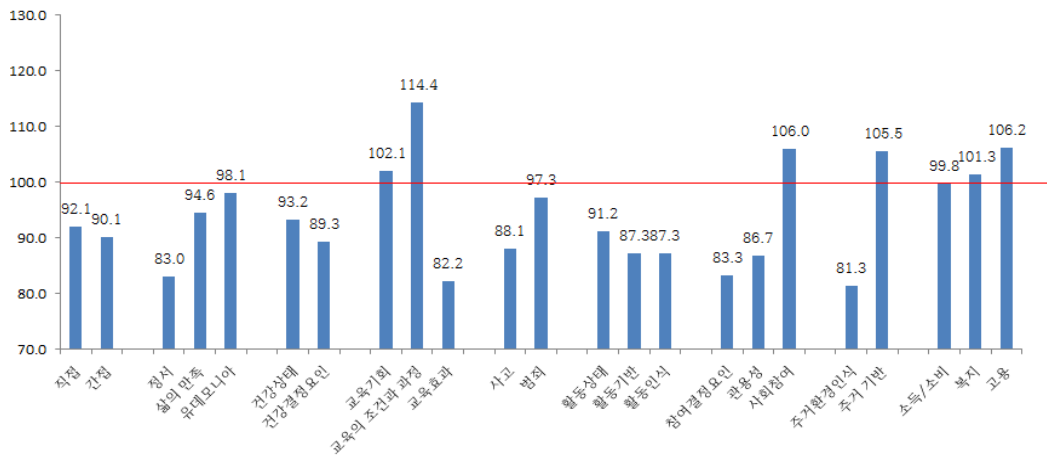
강원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영역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9개 영역들 가운데 5개의 영역에서만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 활동, 주관적 웰빙, 교육, 그리고 환경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넘는 지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안전, 경제, 그리고 참여영역에서의 지수값은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영역의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근접한 수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경제영역에서 이를 구성하는 세 개의 상위지표-소득/소비, 복지, 고용-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안전영역의 경우 범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학업성취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이로 인해 낮은 학급당 학생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위 지표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에서의 낮은 지표값은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 범죄안전도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영역에서는 참여결정요인만이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고 관용성과 사회참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을 볼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소득/소비, 복지, 고용 모두에서 지표값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고용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하나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58.3%)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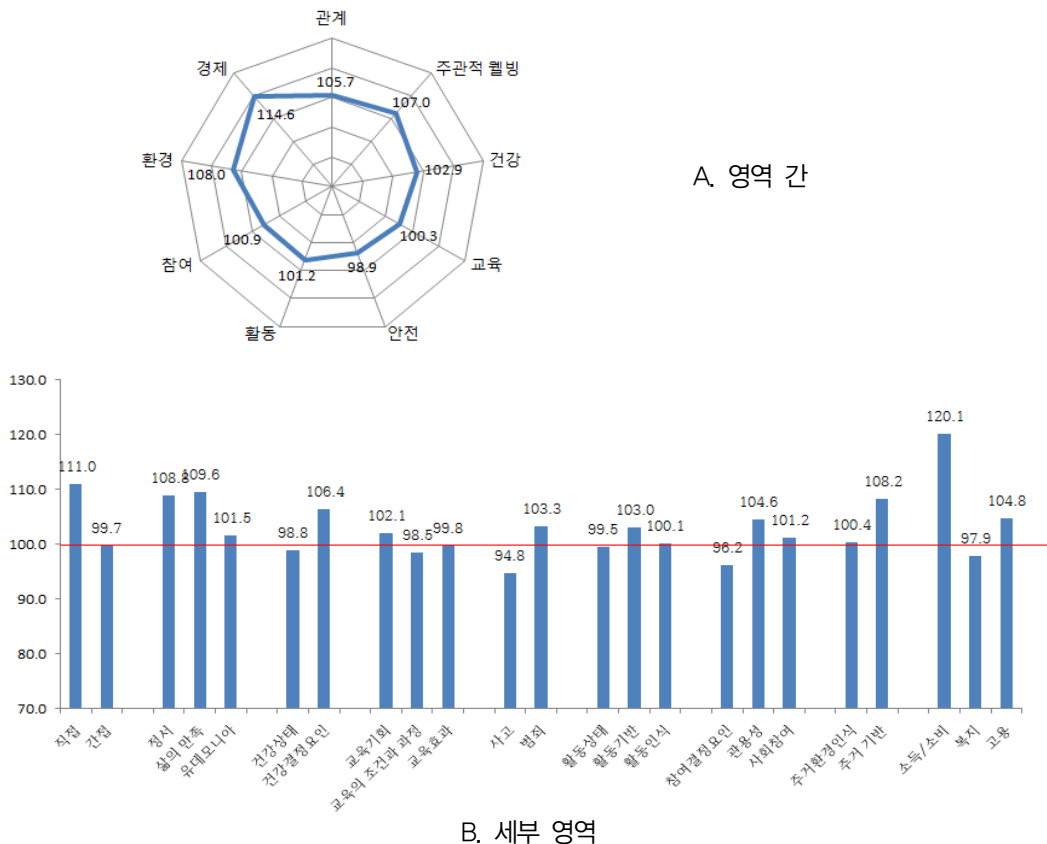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II-24】충북 청소년 행복지수

충북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영역들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며 9개 영역에서 경제영역을 제외한 모두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활동과 환경영역에서 상대적 열악성은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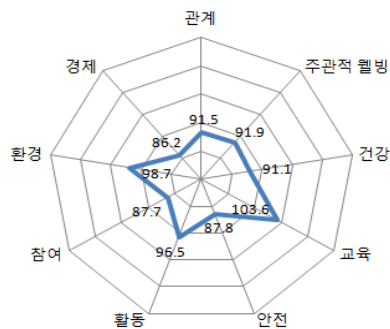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9개 영역에 걸친 23개 상위 지표들 가운데 교육영역의 교육기회와 교육의 조건과 과정, 참여영역의 사회참여, 환경영역의 주거 기반, 경제영역의 복지와 고용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할 뿐 나머지 17개 상위 지표들의 수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 열악성이 큰 상위 지표는 주관적 웰빙영역의 정서, 교육영역의 교육효과, 참여영역의 참여결정요인, 환경영역의 주거환경인식 등이 해당한다.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세부 지표인 교과과정 만족도와 진로교육 만족도에서 충북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나타낸다. 참여결정요인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징계소명권에서 역시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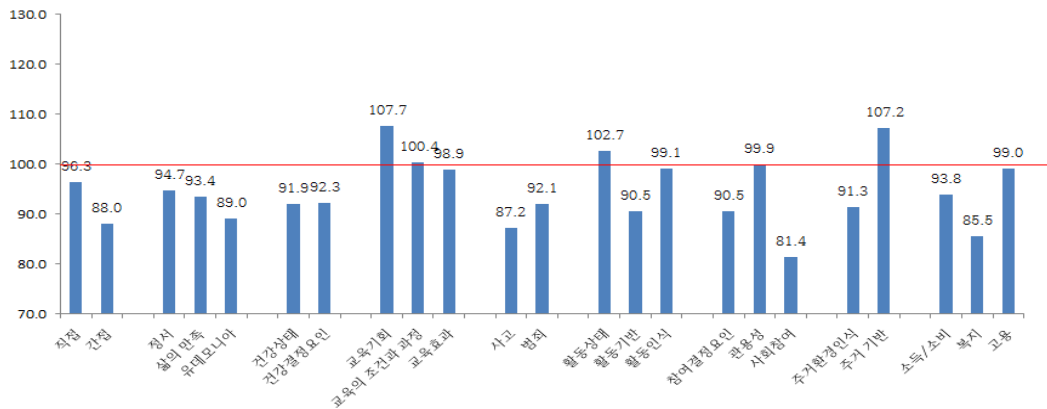
【그림 II-25】충남 청소년 행복지수

충남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부산, 제주, 인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영역별로는 경제, 환경, 관계, 주관적 웰빙, 건강, 그리고 활동영역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으나, 나머지 영역들 가운데 안전영역에서는 오히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영역에서 교육의 조건과 과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와 학업성취도 모두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값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영역에서는 사고의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이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세부 지표들 가운데 위기상황대처 능력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영역에서는 참여결정요인에서 상대적으로 지표값이 낮으며, 이는 이를 구성하는 세 개의 세부 지표들 가운데 학칙개정권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 다소 낮은 편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영역에서는 복지의 지표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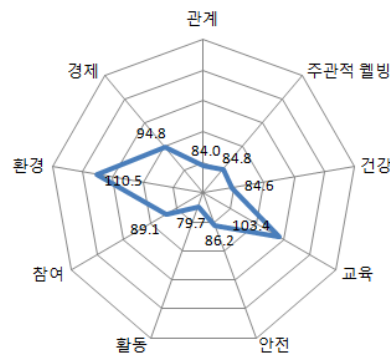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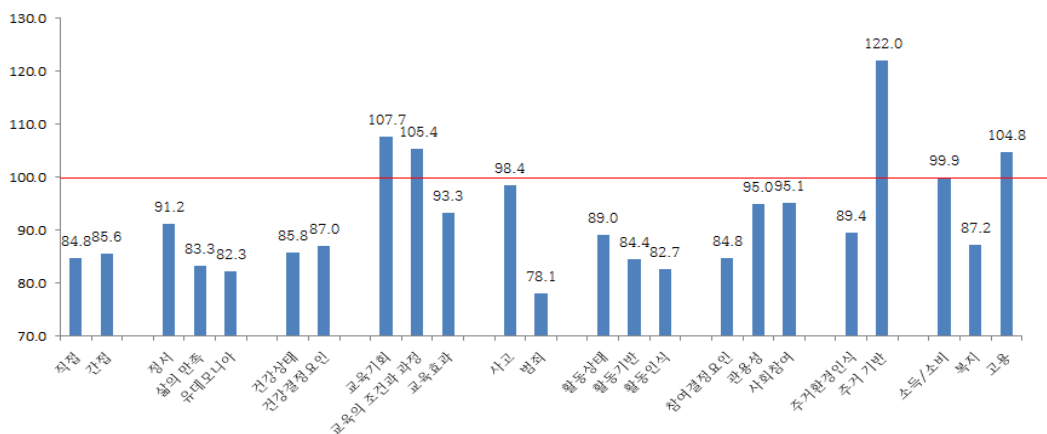
【그림 II-26】 전북 청소년 행복지수

전북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9개 영역들 가운데 교육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 수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 9개의 영역들 가운데 경제, 참여, 그리고 안전영역에서 전북의 취약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 활동, 그리고 환경영역에서만 영역별로 전국 평균을 넘는 상위 지표가 존재하며, 나머지 영역들에서는 모든 상위 지표들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계영역에서는 간접적 관계가 특히 상대적으로 보다 더 열악하고, 주관적 웰빙에서는 유데모니아의 수치가 정서나 삶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음을 볼 수 있다. 참여영역에서는 사회참여의 수치가 타 지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인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와 자원봉사 참여율 모두에서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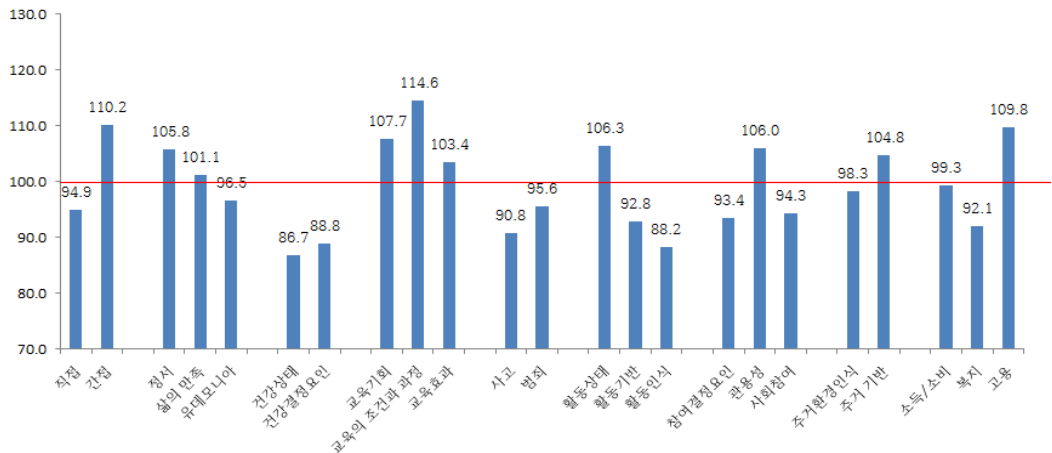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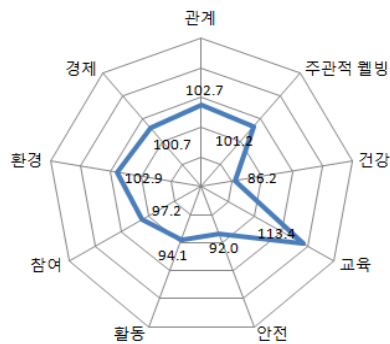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II-27】 전남 청소년 행복지수

전남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고, 이를 구성하는 9개 영역 가운데 환경영역과 교육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7개 영역 가운데 활동영역에서 상대적 취약성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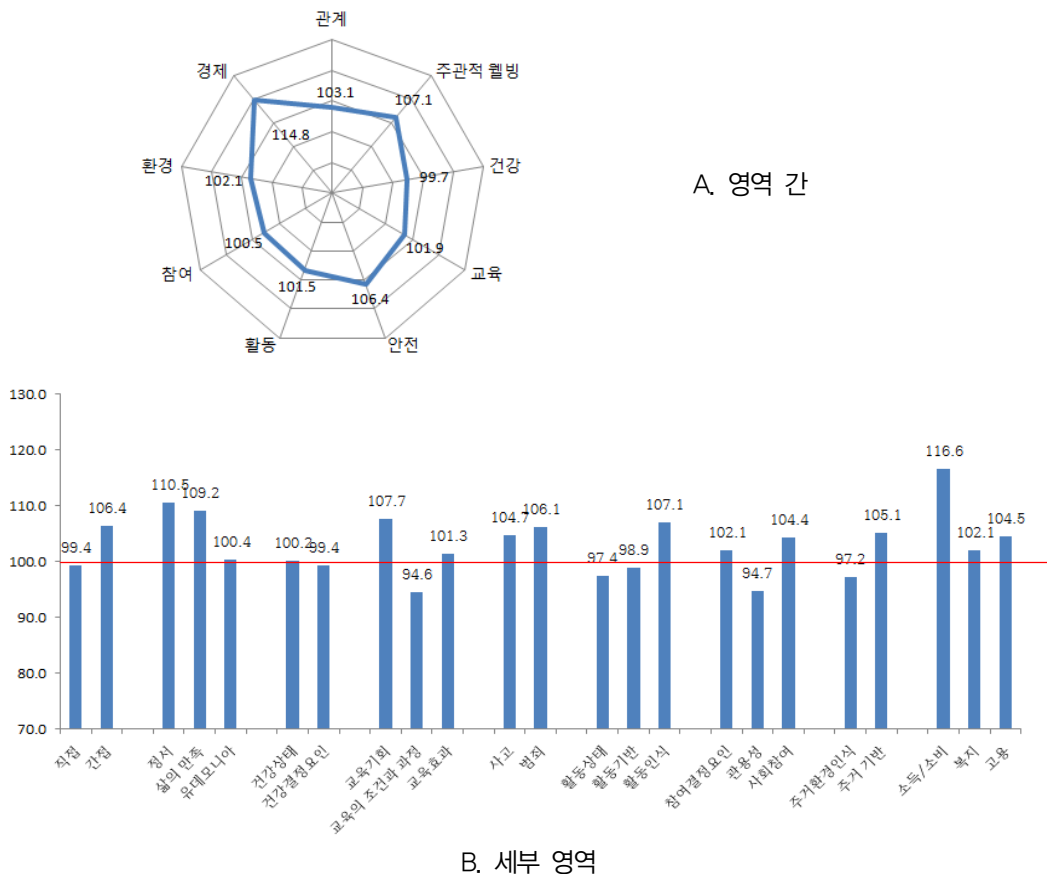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영역에서의 교육기회와 교육의 조건과 과정, 환경영역에서의 주거 기반, 그리고 경제영역에서의 고용만이 해당 상위 지표의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9개 상위 지표의 수치들은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영역의 범주는 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객관적 지표인 청소년 범죄피해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값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II-28】 경북 청소년 행복지수

경북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며,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9개 영역들 가운데 건강, 안전, 활동, 그리고 참여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 수준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건강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 대비 지수값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정책추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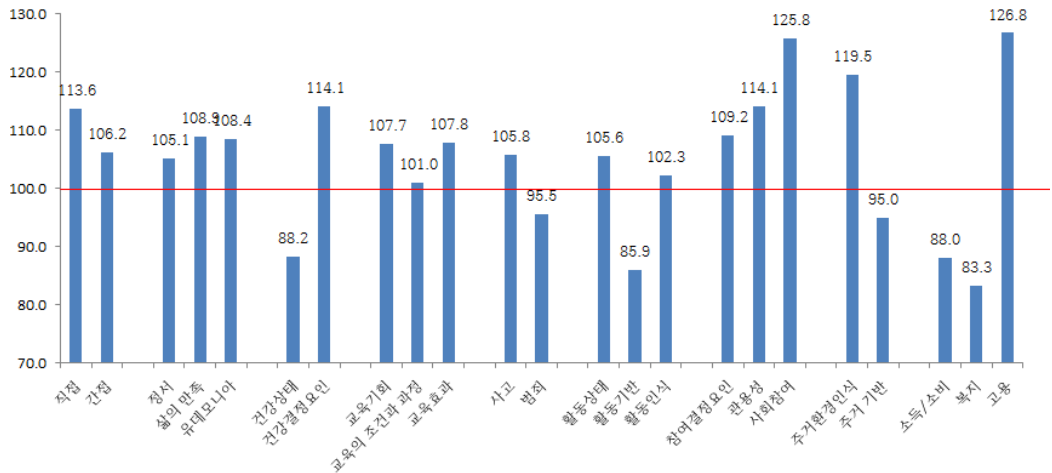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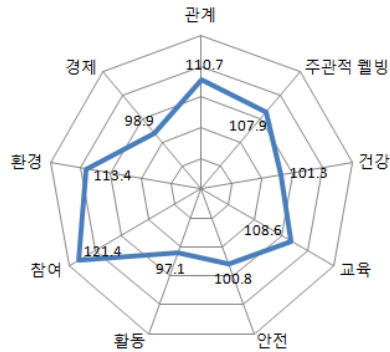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건강영역의 두 지표는 모두 해당 지표의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안전영역 역시 두 상위 지표인 사고와 범죄 모두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관계영역에서는 간접적 관계에 비해 직접적 관계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활동영역의 경우 활동기반과 활동인식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영역에서는 상위 지표들 가운데 관용성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경제영역에서도 세 개의 상위 지표들 가운데 고용만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29】 경남 청소년 행복지수

경남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영역별로는 경제, 주관적 웰빙, 안전, 그리고 관계영역에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9개 영역 가운데 건강영역의 수치만이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영역에서 교육의 조건과 과정, 참여영역에서 관용성 등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을 측정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학업성취도 모두에서 경남은 타 지역 대비 다소 낮은 편에 해당한다. 주관적 웰빙영역의 경우 정서와 삶의 만족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며, 경제영역에서는 소득/소비가 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B. 세부 영역

【그림 II-30】 제주 청소년 행복지수

제주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인천과 함께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영역별로는 경제영역과 활동영역의 지수값이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7개 영역에서는 모두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며, 특히 참여, 환경, 관계, 그리고 교육영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관계, 주관적 웰빙, 교육, 그리고 참여영역에서 각 영역에 해당하는 상위 지표들의 수치가 해당하는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영역 내 상위 지표들 간 큰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테면, 건강영역에서 건강결정요인은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건강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경제영역의 경우 소득/소비와 복지 모두 타 지역의 해당 지표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복지를 측정하는 세부 지표 가운데 사회복지지출 비율에서 제주는 1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제주 다음으로 낮은 지역의 해당 수치가 19.5%임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낮으며 이로 인해 복지의 지표값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5. 소결

행복은 그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명확한 정의조차 용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심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원론적 연구를 포함해 이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모색이 최근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다루는 학문적 영역도 사회학, 경제학,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의 개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표의 개발과 측정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1) 청소년의 행복한 삶 결정요인

개인의 특성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학생이 남학생이거나 연령이 적거나 외향적인 성격이거나 질병이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이를 선천적 질병과 후천적 질병 혹은 양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후천적인 경우가 선천적인 경우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친부모와 동거하거나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거나 학급 내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가 주택 여부나 종교의 유무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기존의 성인 대상 연구결과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나타나지 않으며, 외향적 성격과 같은 기질에 의한 차이는 오히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 동거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내 성적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는 학교급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8개 영역 가운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보다 중요함을 함축한다. 특히, 교육영역 만족도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관계영역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영역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학교급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영역에 비해 관계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 이 두 영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관계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영역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나 이러한 관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안전영역의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냈다.

영역별 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질병이 있는 경우 8개 영역 가운데 건강영역에서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낮춤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일수록 경제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타 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보다 크게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학생의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 즉 본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의 정도’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질병의 유무와 친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즉,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은 해당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음은 물론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며 영역들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혹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 외향적인 성격의 청소년일수록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더불어, 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주관적 웰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 가운데 교육영역과 관계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행복지수 산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을 9개 영역, 68개의 세부 지표-37개의 객관적 지표와 31개의 주관적 지표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영역별 세부 지표에 기초해 영역지수를 측정하고, 다시 이를 이용해 전 영역에 걸친 종합지수를 측정하였다. 지표 간 측정단위와 분산 등에서의 차이를 감안해 영역지수와 종합지수의 측정시 표준화 과정을 거치며 세부 지표들 간 그리고 영역들 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영역지수는 영역별로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관계영역은 부산에서 단연 높은 반면 전남과 울산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관적웰빙 영역은 부산에서 높고 전남에서 낮다. 건강영역은 대구와 강원에서 높고 전남과 경북에서 낮다. 교육영역은 경북과 부산에서 높고 경기와 서울에서 낮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안전영역은 부산에서 매우 높고 전남, 전북, 강원에서 다소 낮다. 활동영역은 인천, 강원, 경기에서 높고 전남, 충북, 광주에서 낮으며, 이외의 지역들에서는 대체로 유사하다. 참여영역은 제주에서 가장 높은 반면 울산과 전북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환경영역은 강원과 제주에서 높고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경제영역은 경남, 충남, 울산에서 높고 강원과 전북에서 낮다.

종합지수는 부산에서 가장 높고 인천과 제주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반면 전남, 충북, 전북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9개 영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는 교육영역, 부산, 대구, 강원, 그리고 전북은 경제영역, 인천은 환경영역, 광주, 충북, 전남, 그리고 제주는 활동영역, 대전, 경북, 그리고 경남은 건강영역, 울산은 참여영역, 그리고 충남은 안전영역이

취약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 간 혹은 영역 간 지수의 차이는 중앙정부와 더불어 해당 지방정부의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지수측정결과는 지역별로 어느 영역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지를 제시해 주며 해당 영역의 세부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을 통해 정책의 추진이 시급한 구체적인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제 Ⅲ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결과 및 추진전략 개발

1. 시범사업 추진 내용
2. 시범사업 지역 현황 및 운영설계
3.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종합 제언
4. 시범사업 효과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5.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절차 및 추진전략 개발

제 III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결과 및 추진전략 개발*

1. 시범사업 추진 내용

1) 개요

2015년도 시범사업의 영역 선정은 2014년도 연구보고서의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세부추진사업’에 관한 전체 내용을 연구자가 고찰하고 분석한 다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시의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3개 단위 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경제영역은 보고서에 제시된 7개 단위사업 중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의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하였다. 참여영역은 원 보고서에서 제시된 4개 세부사업 중 ‘지역 옴부즈맨제도’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시범 설치 운영’으로 사업명을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영역은 원 보고서에서 제시한 7개 세부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의 기회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운영 주체가 청소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

금년도 시범사업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은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의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사업기간은 7개월(15. 4.1~10.30)이며, 대상 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개 지역(시·군·구)으로 행정기관과 청소년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공모

* 집필 : 오해섭 · 김세광 · 정윤미-본장은 하위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연구 Ⅲ-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 전략’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과정을 추진하였다. 사업영역은 앞서 설명한 3개 영역(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 청소년옴브즈맨 기구, 어른신(부모)-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인구와 시설 등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표 III-1 시범사업 영역 및 내용

사업 영역 및 명칭	사업 내용	기대 효과
경제영역 :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	-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단위 상설 프리마켓 운영 -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운영 - 지역 사정에 따라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가능	-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과 자립심 강화 - 기부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 - 도전정신과 창업마인드 함양
참여영역 : 청소년 옴브즈맨 기구 시범 설치 운영	- 사업 단위 지역내 행정기관 및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옴브즈맨 기구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활동보고서 작성 - 장기적으로 해당 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및 독립된 사업 부서 설치를 위한 절차 추진	-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증진 - 청소년문제와 불만사항 조사 - 문제 발생 청소년 대한 자문 -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예방 및 해결 대책 정부에 제언
관계영역 : 어른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지역 내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경로당, 청소년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거나 어른신-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지역 내 세대 간 소통문화 형성 - 부모와 자녀 간 공감대 형성, 세대갈등 및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및 조정

2. 시범사업 지역 현황 및 운영설계

1) 청소년 및 관련현황

(1) 군산시 청소년 인구 현황 (9-24세)

군산시 청소년 인구현황은 2014년 연말 기준 남자 27,900명, 여자 25,113명으로 총 53,013명이다.

표 Ⅲ-2 군산시 청소년 인구현황(9세~24세)

(단위: 명)

연령	계	남	여	비고
9세~24세	53,013	27,900	25,113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4.12.31. 기준)

(2) 학교(초·중·고·대) 현황

표 Ⅲ-3 군산시 학교 현황

(단위: 개교, 학급, 명)

구분/학교별		학교수	학급수/학과	학생수
초등학교	국립	1	19	508
	공립	55(3)	718	15,529
중학교	공립	15	243	7,956
	사립	4	60	2,039
고등학교	공립	8	201	5,568
	사립	4	108	3,461
초중고 합계		87	1,349	35,061
대학교	국/사립	5	133	17,672
전체합계		92(3)		52,733

출처: 초중고는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대학은 군산시(2013). 제19회 군산 통계연보에서 발췌, ()안은 분교 숫자임

군산시 학교현황은 초, 중, 고등학교 87개교이며 학급수는 1,349학급이며 학생수는 35,061명임. 대학교는 국립 1개교와 사립4개교로 133학과 17,672명으로 군산시 전체 학생수는 52,733명이다.

(3) 군산시 어린이·청소년(18세 미만)친화도시 구축 준비 사항

- 지자체장 공약으로 전담팀 운영 및 지자체와 본 사업(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계획)도 본 기관과 협약하여 적극적 의지를 비추고 지원 예정
- 본 기관과 함께 향후 어린이청소년행복도시를 위한 간담회 등 정책적 내용들 긴밀한 협의구조 논의

-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군산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 정책을 추진 예정
- 어린이·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규 33개, 사업 확대 24개, 기존 3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1천45억원을 투자 예정
-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전담부서인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

2) 세부추진사업 운영계획

(1) 목표

- 청소년이 운영하는 상설 프리마켓(우리동네 C.E.O)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과 자립심을 강화하고, 기부를 통한 봉사정신과 도전정신, 창업마인드 함양
- 청소년옴브즈맨 기구 설치 운영(암행어사 출두야)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문제와 불만사항 조사와 문제 발생 청소년 대한 자문과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예방 및 해결 대책 정부에 제언하여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
- 어르신(부모)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공감 브릿지)을 통해 지역 내 세대 간 소통문화 형성과 부모와 자녀 간 공감대 형성, 세대갈등 및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2) 세부사업계획

가. 경제영역(청소년상설 프리마켓) : 우리동네 C.E.O

① 사업목표

- 경제와 신용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및 지속적인 창업 가능성 모색
- 자발적 경제 참여를 통한 자신감의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② 세부사업 내용

표 III-4 경제영역 시범사업 계획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비고
경제 영역	우리 동네 C.E.O를 모십니다.	- 홍보: 공문발송, SNS활용, 현수막 홍보,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 면접 - 참여자: 창업계획서 제출 - 면접을 통해 참여자 선발(20명 내외) - 면접관: 청(소)년 창업자 등	4월	
	청소년 신용경제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신용관리교육프로그램 - 경제관념 - 금전관리와 소비교육프로그램 - 나눔과 기부 교육 프로그램 - 토론 및 발표	5월	프리마켓 근처에 소재한 전북은행과 연계 예정
	창업과 마케팅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창업의 이해 - 마케팅의 이해와 적용 - 청(소)년 창업자와의 만남과 소통 (성공과 실패 사례 나누기) - 재무관리 - 토론 및 발표	5월	
	상설 프리마켓 운영 “청소년장터”	- 상설 프리마켓 운영 - 프리마켓 전담 동아리 등 자치 조직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실내 프리마켓 장소에서 청소년 Youth Cafe도 함께 운영 - 물건 뿐 아니라 재능이나 문화컨텐츠 (예:미술, 음악 공연 등)도 판매할 수 있는 장(setting)을 마련	6~10월	프리마켓 근처에 소재한 시장 (명산시장)과 연계 방법 모색 (예정)
	이동 프리마켓 “Move Market (무브마켓)”	- 이동형 프리마켓 - 월1회 근대문화역사 거리 주변에서 이동형 프리마켓 진행 - 벼룩시장 월1회 주변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외부에서 벼룩시장 진행	6~10월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 평가회 - 지속적 상설 프리마켓(내부) 운영 가능성 타진 - 및 이동형 프리마켓 개발 노력	10월	

③ 이점 및 특성

- 약 50평 규모의 실내 상설 프리마켓을 진행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됨. 그리고 실내 상설 프리마켓을 진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음(정기 상설 운영 시간인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에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유롭게 오후까지 운영 가능)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은 근대문화역사 거리로써 많은 유동인구가 있음.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1km 이내, 도보로 15분 이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충10개교-군산여고, 영광여고, 마이스터고, 전북외고, 영광중, 군산중, 남중, 금광초, 군산초, 중앙초)
- 실내 상설 프리마켓 주변에는 연대 가능한 조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예: 아름다운 가게,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산돌학교, YMCA, YWCA, 군산성폭력상담소 등)
- 프리마켓 수입의 50%는 자기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며, 수입의 20%는 재료비로, 30%는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후원금으로 지출함으로써 기부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

④ 사업진행일정

표 III-5 경제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내용 \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우리동네 C.E.O를 모십니다.							
청소년 신용경제아카데미							
창업과 마케팅 아카데미							
상설 프리마켓 운영							
이동 프리마켓 “Move Market”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⑤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경제, 신용, 창업에 대한 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
- 공동체 의식의 증가
- 기부 및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
- 지속적이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및 문화 공간의 조성 가능

나. 참여영역(청소년 옴부즈퍼스/기자학교) : 암행어사¹⁴⁾ 출두야!

① 사업목표

- 청소년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대중의 인식제고
- 청소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주도성과 주체성 함양
- 청소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관계성 향상

② 세부사업계획

표 III-6 참여영역 시범사업 계획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비고
참여 영역 참여 영역	암행어사 과거시험	○ 홍보: 공문발송, SNS활용, 현수막 홍보,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 면접 및 시험 - 시험 주제: 사회참여와 옴부즈멘 제도 등 - 면접을 통해 참여자 선발(20명 내외)	4월	
	청소년 사회참여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 시민교육프로그램 - 옴부즈멘 제도의 이해, 적용 - 사회참여의 개념과 사례 ○ 토론 및 발표	5월	
	청소년옴부즈멘 조직화 및 활동	○ 청소년 옴부즈멘 기구 조직화 - 발대식: 청소년 옴부즈멘(=암행어사)로 위촉 ○ 청소년 옴부즈멘 활동 - 정기 활동 보고 및 공유, 정리	6~8월	
	청소년포럼	○ 청소년 옴부즈멘 조사 활동 발표 ○ 패널 발표 및 토론 - 문제점 발견 및 대안 모색	9월	군산시 '어린이행복'와 연계
	조례 제안 작업	○ 군산시 의회 의원과 청소년 옴부즈멘의 간담회 ○ 조례 구성: - 옴부즈멘 활동과 포럼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안	9~10월	군산시 의회와 연계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 평가회를 통해 지속적 옴부즈멘 활동 운영 가능성 논의 및 활성화 방법 모색	10월	

14) 암행어사는 조선 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 정치의 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비밀리에 살펴서 부정 관리를 징계하던 임시 관리로써(DAUM 한국어 사전), 그 기능과 역할이 청소년 옴부즈멘과 유사하면서도 단어가 주는 상징적·위트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암행어사 라는 명칭을 사용

③ 이점 및 특성

- 군산시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본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군산시 “어린이행복과”와 협약 체결)
- 사회참여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청소년 참여 전문성 및 사회 참여 관련 네트워크 기구와의 연계 전문성 등)

④ 사업진행일정

표 III-7 참여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내용 \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임행어사 과거시험							
청소년 사회참여아카데미							
청소년옴부즈맨 조직화 및 활동							
청소년포럼							
조례 제안 작업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⑤ 기대효과

- 어린이청소년 복지와 권리 증진 가능성 증가
- 어린이청소년의 주체성과 주도성의 향상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다. 관계영역(가족, 노인과의 교류): 공감 브릿지(Bridge)

① 사업목표

-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 이해의 폭을 넓힘
-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가족에 대한 신뢰를 쌓고 공헌에 대한 인식을 개선
- 청소년들이 부모의 직업현장을 간접체험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보여줌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녀에게 깊은 친밀감을 형성

-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는 노인문제를 청소년들이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노인과 교류, 노년기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대문화를 통합하는 가치 확산, 세대갈등의 실효적 예방

② 세부사업계획

표 III-8 관계영역 시범사업 계획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비고
교류	부자회담 (부모와 자녀의 회담)	○ 홍보 및 모집 - 주변 학교(군산초등학교, 금광초등학교, 동중 학교)에 홍보의뢰 및 학교 앞 길거리 홍보물 배포 - 웹 홍보 - 면접 및 대상선정(청소년 10명, 부모 15~20명) ○ 안건 선정 ○ 부자회담(3회)	4~7월	
	하고픈 가봉 (하고 싶은 가족봉사 : 세대 한끼)	○ 홍보 및 모집 - 군산신문, 군산사랑방신문 등 지역신문사 홍보 의뢰. ○ 선언식 - 참여희망 가족모집선언식 ○ 봉사목표, 일정 논의 및 확정 - 가족팀 모임 및 봉사 목표 및 봉사시간, 장소 등 정함. ○ 봉사활동(세대 한끼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어르신께 식사 대접 및 소통 시간) ○ 중간 모임(매달 1번씩 3회) ○ 과정, 결과 발표회	4월~8월	
	잡 다큐 (부모직업체험)	○ 홍보 및 모집 - 군산노동부에 직업체험 가능한 곳 의뢰 및 홍보 부탁 - 기관 섭외 후 해당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 참가 청소년 10명 내외 모집 ○ 오리엔테이션 ○ 부모직업체험 - 부모님의 직장 방문 및 소개시간 - 간접체험 및 직장동료 소개 ○ 결과발표 - 영상편지제작 - 발표회	5월~9월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비고
교류	할매힐러	○ 홍보 및 모집 - 금강노인복지관의 '라디오스타 1339'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 섭외, 청소년 방송섭외 (금강노인복지관과 협약) - 학교에 홍보의뢰 및 섭외. ○ 목표설정 - 모집된 청소년과 대학생이 활동목표설정. ○ 과정 공유 - 문제해결 과정을 '라디오 스타 1399'에 방영 - 지역 신문 및 온라인 신문에 기재요청 및 기재 ○ 결과 공유 - 문제해결과정 묶음자료 발표회	5월~9월	

③ 이점 및 특성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유연성 (노인복지관과 협약 체결)
- 사업 진행을 위한 가족봉사단 및 군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연계 가능

④ 사업진행일정

표 III-9 관계영역 시범사업 진행 일정

내용 \ 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부자 회담(부모와 자녀의 회담)							
하고픈가봉(하고싶은가족봉사) - 세대 한끼 -							
잡다큐							
할매 힐러							

⑤ 기대효과

- 지역 내 세대 간 소통문화 형성
- 가족단위의 사회공헌활동이 가족만의 의미 있는 활동이 되며 지역연대의 초석이 될 수 있음.

- 청소년이 부모의 직업체업을 통하여 부모-자녀 간 갈등 해소와 조정 및 가족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지역 내 세대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여 세대갈등 예방과 조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종합 제언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은 상술한 바와 같이, 3개 영역으로 경제영역 시범사업(청소년상설 프리마켓 : 우리동네 CEO), 참여영역 시범사업(청소년 옴부즈퍼스, 기자 학교 : 암행어사¹⁵⁾ 출두야!), 관계영역 시범사업(청소년-가족, 노인과의 교류 : 공감 브릿지)이다. 금년도 제1차 시범사업 운영 과정과 참가자 효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업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종합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경제영역

청소년기에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용경제와 진로역량을 높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애주기의 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올바른 경제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본 경제활동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우리동네청소년CEO’를 조직하여 신용경제 아카데미, 창업마케팅 아카데미, 상품 판매 기획, 선진적 견학, 상품 생산, 프리마켓 운영 등을 실시하였다. 사업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을 위해 다음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15) 암행어사는 조선 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 정치의 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비밀리에 살펴서 부정 관리를 징계하던 임시 관리로써(DAUM 한국어 사전). 그 기능과 역할이 청소년 옴부즈맨과 유사하면서도 단어가 주는 상징적·위트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암행어사 라는 명칭을 사용

정책 제언 1)-1: 프리마켓 운영의 주체는 청소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 청소년자치 조직에 집중해야 한다.

프리마켓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팀별로 수행하는 역할을 공유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프리마켓 등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가급적 조직적 활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신용경제활동 조직을 기반으로 프리마켓, 상품구입, 판매, 마케팅 등을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주어야 한다. 본 활동 중에도 기획 및 운영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과 판매에만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나뉘지기도 하고, 팀 간의 단합을 유도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가급적 청소년지도자는 프리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청소년을 참여 할 수 있도록 관계와 공간을 설계하고 조직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정책 제언 1)-2: 프리마켓 운영에 따른 기존의 전문화된 공간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청소년자치조직 활동과는 다르게 프리마켓의 경우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실천적 활동임으로, 학문적인 배경 혹은 관련 매체를 통한 자료조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다. 지역적 특성¹⁶⁾ 참여 청소년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프리마켓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청소년 및 실무자는 이미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성격의 프리마켓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운영방식 및 홍보방법 등을 벤치마킹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책 제언 1)-3: 프리마켓 운영에 참여할 청소년들의 모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마다 각기 다른 학사일정에 따라 학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종교 활동 등에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 프리마켓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해야 한다.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청소년의 요청이 있을 시 기술적인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이미 제작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16) 군산은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활동의 활성화로 다양한 프리마켓 장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다.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싶거나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프리마켓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경우 기술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개념, 나눔의 이해 및 실천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 및 정례적인 교육계획과 함께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 제언 1)-4: 프리마켓 상설 운영에 따른 입지와 야외 활동 장소를 면밀하게 선택하여 다양한 기존 프리마켓과의 연대활동이 중요하다.

상설 프리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소비자의 유입이 중요하다.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홍보가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프리마켓의 입지선택이 큰 영향을 끼친다. 프리마켓, 아트마켓 등 다양한 프리마켓 문화의 대중화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기존 프리마켓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프리마켓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점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역 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박물관과 같은 공공기관 주도의 프리마켓 한곳과 지역의 상가번영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프리마켓 두 곳, 예술가라는 직업적 특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트마켓 한곳 등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기반이 넓지 않은 지역사회의 특징상 이들 기존 프리마켓과 청소년 프리마켓과의 경쟁 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 프리마켓은 기존 프리마켓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케팅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성 개선을 위하여 기성 프리마켓과의 경쟁보다는 청소년만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책 제언 1)-5: 청소년 프리마켓의 운영기획, 물품제작, 판매의 역할을 체계화해야 한다.

청소년 프리마켓 운영은 크게 프리마켓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운영자와 직접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참여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할 판매자, 프리마켓을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운영자와 판매자는 그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지며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노력 시간이 달라진다. 운영자의 경우 프리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판매자를 모집하고 프리마켓을 홍보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판매자의 경우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을 위한 제반준비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제작기술을 습득하고 숙달하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청소년이 운영자의 역할과 판매자의 역할을 모두 동시에 담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프리마켓을 처음 기획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각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을 구분하거나, 일부 역할의 경우 실무자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2) 참여영역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청소년 관련 현안에 얼마만큼이나 의사결정을 공유하는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청소년참여의 지지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옴부즈퍼슨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사하였으며,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사작성 및 SNS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청소년참여포럼 등을 통하여 사회적 공론화 하는 과정으로 청소년참여 활동이 지역전반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본 옴부즈퍼슨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참여포럼 ‘청소년참여, 지역을 바꿉니다.’는 본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관계 활동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청소년들 중심으로 지역 정책을 제안했다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더불어 지역 일간지(신문사)와 MOU체결을 통하여 신문의 한 면을 얻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더불어 옴부즈퍼슨 청소년조직이 구축되었다는 것은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의 활동시간 조율과 역할 부담의 과중함 등으로 사업이 늦추어 지는 등 몇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는 향후 활동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청소년사회참여 아카데미, 위촉식, 지역사회 조사활동, 청소년참여포럼 등의 활동이 전국적인 청소년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의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된 사회참여활동을 기반으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정책 제언 2)-1: 참여자 모집 시 학교 내 사회참여와 관련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집중 모집하여, 사전 활동설명회를 통해 참여할 청소년들에게 본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내 사회참여 및 언론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일반 참여 청소년들과의 활동의 적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활동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언론이나 사회참여활동 관련한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교육하였다. 참가 청소년들 중심으로 주변의 다양한 청소년들을 자연스럽게 유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더불어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초기 사회참여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방하여, 10대 초중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언 2)-2: 청소년간의 관계와 청소년과 지도자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적 접근이 요구된다.

시범사업 운영 시 팀별체제로 모임을 진행함으로써 전체 참여 청소년에 대한 라포형성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서로 간 어색함을 보이거나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다. 움부즈퍼슨 초기 청소년조직을 할 때 활동의 내용 이전에 청소년들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배분될 필요성이 있다. 팀별 활동을 할 때에도 팀 간 자연스러운 연계활동도 요구된다. 더불어 중요한 관계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프로그램 대상으로서 역할과 사업이 있을 때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Route)를 통해 자연스러운 관계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참여 활동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열어 두어야 한다.

정책 제언 2)-3: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 간의 임원진 사전회의를 통한 아이디어 및 안전 등을 도출하는 회의를 기반으로, 책임감 등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중심의 참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역사회 조사활동, 기자 및 지역 청소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진의 주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청소년임원진과의 사전 회의와 다양한 관계를 통한 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주제를 정하여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주도의 활동이 되도록 가급적 임원진들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팀별 활동 시에 미리 구성된 임원진 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주도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책 제언 2)-4: 담당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조사활동 후 본 읍부즈퍼슨은 청소년들의 관점으로 지역사회 문제와 대안을 알리기 위해 기사 글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 하고 있다. 기사초안-문맥점검-오타검열-기사최종 등의 단계를 구성하여 자체 피드백하고 후에 내용을 전문가 혹은 멘토에게 자문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들 참여활동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정적인 활동이 아닌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활동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욕구가 하나씩 받아들여짐에 따라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질 수 있다.

정책 제언 2)-5: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다양한 청소년조직의 네트워크 활동이 요구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현재 조례 작업 중), 학생회 연합회, 청소년시설의 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에 참여활동을 하는 청소년조직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조직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되 지역사회 전체의 정책적 제안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연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체 기구의 대표성을 갖기는 현재까지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 지역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기적인 활동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2)-6: 청소년참여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조례 등으로 제도 및 정책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단기적인 활동으로 제안이 아닌 본 시범사업과 같이 일 년의 체계화된 활동을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시범 사업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경제, 참여, 관계 세 가지 영역에 집중했으며 활동에 따른 목표에 집중했다. 이러한 활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구조를 바꾸어 가는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다만 청소년참여활동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몇몇 청소년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적 활동에 대해 실제 진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했던 우리동네청소년CEO 청소년들이 경제 분야에 제안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본 최종 청소년포럼에서 7가지 영역별 활동의 본 사업의

움부즈 퍼슨 활동 중심으로 본 관계, 경제 영역의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주도했던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3) 관계영역

관계영역에서는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인 ‘하고픈 가봉(하고 싶은 가족봉사)’과 부모님의 직업을 다큐로 제작하는 ‘잡다큐’, 청소년과 부모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부자회담(부모와 자녀의 비정상회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인 ‘할매힐러’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함께하는 봉사를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가족 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노인세대, 부모세대와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 되었다.

잡다큐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와 진로고민을 나누게 되었고, 진로 뿐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부자회담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은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할매힐러는 노인과의 교류를 통해 세대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하였다.

사업 진행 중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청소년과 부모 참가자의 모집, 노인세대와 소통에서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갈등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해결 방안과 향후 본 활동의 긍정적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제언 3)-1: 참여자 범위를 확장하고 년 초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가자 모집 중에 하고픈 가봉, 잡다큐, 부자회담 모두 부모님과 청소년자녀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 또는 청소년 중 한명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목표는 세대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부모와 자녀사이가 좋지 않거나 회복을 돕는 가족을 선별하고자 했으나 함께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모집 오리엔테이션을 부모세대만 몇 차례 소수 설명하고 안내해도 나중에 자녀인 청소년이 반대하거나 청소년이 참여한다고 하면 부모세대가 거부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세대, 부모세대를 따로 모집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 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부모, 참여하는 부모의

청소년자녀가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홍보를 년 초부터 학기 초까지 진행하여 1학기와 여름방학에 이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동기간 확보와 모집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책 제언 3)-2: 청소년과 노인세대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초기에 친밀감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하고픈 가봉(세대 간 함께 하는 자원봉사)’에서 실무자가 첫 만남에 개입한 가정의 경우 개입하지 않은 가정보다 친밀감이 훨씬 높아졌으므로, 최대한 초반의 만남에 실무자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건 상 실무자 없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는 라포를 형성할 구체적인 방안을 워크숍이나 캠프의 형태로 부모세대와 청소년들에게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평소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접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중간 부모세대의 조력이 뒷받침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통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메뉴얼북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초기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의 상황이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태도로 어르신들이 관계가 소원하기도 하였다. 중간 세대인 기성세대가 봉사로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태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본 활동의 성공적인 지점은 초기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정책 제언 3)-3: 실무자와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 적극적인 소통과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

사전조사부터 활동 중간 연락과 만남을 통해 청소년, 부모세대, 노인세대의 어려움들과 욕구를 파악하여 조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노인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연계된 지역기관 실무자와의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각각의 주체가 활동 시 어려움을 겪을 때 즉각적인 연락망과 지원이 요구된다. “할매힐러”의 경우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움부즈 퍼슨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자료조사활동, 취재활동, 설문조사활동, 통계분석 등을 배우며 진행하였으므로 시간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활동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제언 3)-4: 영상촬영 등 활동을 기록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잡다큐의 경우 첫 만남에서 실무자가 동행하여 활동에 대한 소개, 개인적인 교류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단지 한번 인터뷰만 하는 것을 넘어 2회 이상 만날 수 있도록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며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성인)를 대상으로 촬영해야 하는데 촬영구도에 대해 막막해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촬영에 대한 시나리오 구상을 철저히 하고 점점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영상 촬영에서 각자가 편안해하는 인터뷰 환경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무자는 청소년들이 쉽게 영상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 제언 3)-5: 부자회담과 같이 세대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토론회는 세대 간의 실제 고민을 도출하고 정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부자회담에 참여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몰입도가 좋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부모세대와 청소년세대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청소년과 부모세대, 또는 실무진이 준비한 토론 가능한 내용을 선정한 뒤 사전에 발표내용을 준비하여, 토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회적인 활동보다는 가급적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다른 주제로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반드시 청소년과 부모님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청소년과 부모세대 어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쉬운 용어로 설명, 점차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끌어내도록 시간을 두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3)-6: 잡다큐와 같이 부모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군에 청소년들이 접하기 쉽도록 진로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군의 어른을 소개받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며,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각자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인터뷰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등을 준비하는 진로센터 등과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해 보인다. 운영하는 기관의 지역사회 전문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 제언 3)-7: 본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지지체계가 있어야 하며 주관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관계 영역에서는 청소년과 노인의 만남,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만남 등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 기관과 연령대별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세대 간 관계의 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자신의 부모관계 등에서의 어려움을 타인이 알거나 논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활동의 모집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일반적인 일임을 알리고, 긍정적으로 관계할 것을 권하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본 자료를 위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4. 시범사업 효과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금년도 실시된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는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의 세부 영역으로 전국 단위의 조사에 사용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중고등학생용]’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시범사업 참가자에 대한 사전조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2015년 5월 중, 사후조사는 2015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금년도 시범사업 참여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총 46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사업영역과 전체 사업설계에 비해 분석 대상이 적은 이유는 각 영역별 초기 참가자들의 중도 이탈현상과 2015년 국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최종 검수과정

에서 비교집단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 두 집단 간 비교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실험집단 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주요결과 및 시사점

2015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 추진 과정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향상 정도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계사업에 반영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영역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영역 참가자(N=12)들의 전반적인 관계만족도는 사전 점수(M=6.83)에 비해 사후점수(6.92)가 미미한 수준이 상승하였다. 반면 신뢰영역으로 자기주변(가족, 친구, 학교선생님, 이웃)과 사회기관(지역사회 기관 및 지방 및 중앙정부조직)에 대한 신뢰도는 사전범수보다 사후점수가 오히려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경제영역 참가자들의 학교,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의 참여권과 권리에 관한 인식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점수(M=16.8), 참여 후 점수(M=16.0)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영역 참가자(N=24)들의 전반적인 관계만족도 사전 점수(M=6.67)에 비해 사후점수(7.00)가 약간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영역에서도 경제영역과는 다르게 자기주변(사전:M=19.04/ 사후:M=19.13)과 사회기관(사전:M=8.79/ 사후:M=9.25)에 대한 신뢰도가 사전범수보다 사후점수가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참여에 대한 인식도 사전(M=16.92)에 비해 사후(M=17.92) 점수가 1점정도 높아 졌으나, 각 각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영역 프로그램(청소년옴부즈퍼슨, 기자학교: 암행어사출두야)활동을 통해 자기주변과 사회기관에 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계영역 참가자(N=23)들의 전반적인 관계만족도(사전:M=8.40/ 사후:M=7.60)와 자기주변(사전:M=21.20/ 사후:M=20.20)과 사회기관(사전:M=10.30/ 사후:M=9.40)신뢰도는 모두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미미한 차이지만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금년도 시범사업에서 관계영역(청소년-가족,어르신, 노인과의 교류:공감브릿지)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청소년과 어른(부모)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운영상의 장애요인도 잠재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 진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 평균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간의 향상 혹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몇 개의 항목은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는 아직 청소년 참가자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자체가 최초의 시도인 만큼 체계적인 구조화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단 기간의 시범사업 참여와 단편적인 프로그램 활동이 전국 단위로 표준화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로 효과를 연계하는 과정에 한계가 있음도 추측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각 영역별 시범사업 참가 청소년들의 해당 영역에 관한 사후 조사결과가 사전조사보다 평균점수가 미미한 정도 낮게 응답한 점이다. 그 이유는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갑작스러운 생활패턴의 변화를 포함하여 부모의 반대 등 다양한 변수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교육과 활동과정에서 행복한 생활의 의미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2015년도 시범사업 추진과 효과분석 과정의 미흡한 점과 시행착오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각 사업 영역별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2016년도 시범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5.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국내 사례

국내에서 지역 단위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도 국가 인증사업으로 조성된 이래 2015년 현재 129개로 확대되었다.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요인 중 특이 사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학습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기회균등 원리를 적용하여 참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문제해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평행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통한 시사점으로 ①아동과 청소년이 수혜자이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이며 유익한 파트너라는 인식 전환, ②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행정담당자와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관련조례 제정, ③아동·청소년의 대상을 아동복지지원법(18세미만)과 청소년기본법(9-24세)를 적용하여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들과의 연계 협력 강화, ④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및 추진 전략 개발의 한 영역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몇 4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2) 외국 사례

국외 사례로는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CFC)’ 이행에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9개)에 관한 적용과 실천 사례를 아일랜드,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독일, 스위스, 에콰도르, 미국, 이탈리아, 북아일랜드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시사점은 ①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관한 홍보 확대, ②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통로 마련, ③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존중 선행, ④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원칙의 한국화 전략, ⑤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위원회 설립 등을 제언하였다.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절차 및 추진전략 개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절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절차를 추진전략 개발의 기본 원칙, 추진 로드맵, 비전과 추진방향, 기본요건, 실행체계, 영역별 실천과제 등을 <표 6-1>과 같이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III-10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절차

항목	주요 내용
추진전략 개발의 기본 원칙	○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과 지역주민(어른) 간의 파트너십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정책 실현을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
추진로드맵	1단계: 아동(어린이) · 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 구성 · 운영 2단계: 아동(어린이) · 청소년친화도시 운영계획 수립 3단계: 아동(어린이) · 청소년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유니세프와 업무 협약체결 4단계: 아동(어린이) ·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전략 개발 5단계: 아동(어린이) · 청소년친화도시 단위사업 개발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명칭, 조례 내용, 추진 과정 등이 유동적임
비전과 추진방향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 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창의적인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지원 ○ 청소년 친화적 지역 환경 정비 ○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 ○ 청소년-어르신(지역주민)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인프라 구축의 기본요건	○ 청소년의 참여 인프라 구축 및 활동기회 확대 ○ 청소년 친화적인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설치 ○ 청소년 관련 예산확보 및 영향평가 실시 ○ 청소년 실태 보고서 작성
실천과제	○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 필요 ○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 청소년을 위한 유해환경 정비 및 유익한 환경 적극 조성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운영 방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및 추진 전략 개발의 한 영역으로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실태 및 사례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섯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운영 방안에 관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섯 가지 유형은 구체적으로 ①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주도 행정과 지역사회네트워크 협력 추진체계(서울시 성북구), ②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 주도형(광주광역시), ③행정과

민간의 협력 거버넌스(전북 군산시), ④행정기관 주도의 농산어촌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전북완주군), ⑤지역사회학교 중심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구축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한국산마을고등학교) 등이다.

(1) 어린이(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주도 행정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유형
: 서울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체계 특징 및 제언

- 1단계 :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 전담 기구를 신설(아동청소년친화팀, 2011.11)
- 2단계 :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2)
- 3단계 :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2.12)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생 참여예산,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영향평가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하였음.
- 4단계 :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발주(2013.10)
- 5단계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2013.11.20)
- 6단계 : 아동친화예산서 자체 제작(2014.4)
- 7단계 :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2014.5) 및 어린이친화도시 조례 개정(2015.5.14.)
- 8단계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전국 27개 지자체, 2015.9.14.)

첫째, 아동친화도시 혹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추진할 타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추진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과 대상의 정의를 아동(아동복지법: 18세미만)과 청소년(청소년기본법: 9-24세)를 반영하여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10가지 원칙 중 첫 번째 항목이 ‘아동의 참여’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 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명료하게 제시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18세 미만의 아동 혹은 24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아동 및 청소년 담당부서를 주축으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원활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실무적인 사업구상과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활동가와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혹은 수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기관의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청소년의회, 학생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정책 창안대회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직접 주관하고 있는 구조에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전담부서는 현장 활동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무원들이면서 매년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을 추구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이 내실 있고 연속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 전문기관과 협력 혹은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성북아동청소년센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조정하는 허브(Hub)기관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진로, 학습 상담, 학부모 지원,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 주도형

: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특성 및 제언

첫째, 추진협의회에 다수의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과 제도 마련 및 예산 지원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기초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아와 보호론적 시각에서 강점중심으로 전환해야 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선도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기반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동·청소년-지역주민(어르신) 간의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른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믿고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정한 역할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때로는 협력을 통해 성취감과 시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한 상호협조체를 윈윈(Win-Win)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의회와 전 행정부서는 효과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제정, 예산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과 같은 실천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전문가는 비전이 있는 친화마을의 추진방향과 모델을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NGO는 지속적인 중개활동자로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운영하는 등 친화마을 만들기 활력소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들 네 주체의 책임성을 담보한 역할 수행과 상호 간의 파트너십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어린이·청소년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훨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단체 대표 간의 공동대표 거버넌스 형 :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조성추진위원회” 운영 특성 및 시사점

첫째,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산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시청에 전담부서인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시장과 민간단체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강력한 의지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경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 성북구, 전북 완주군 등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4년마다 반복되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으나, 갈수록 줄어드는 지역 인구, 특히 젊은 층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미래 지역인재 발굴과 관리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결과 2015년 9월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같은 확산 분위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청소년 정책이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개발(community Youth Development)’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2015년도 시범사업은 “지역에서 자라고 살아가기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시청,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시설 간의 상생네트워크와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매우 선도적인 운영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책임지는 수평적 거버넌스의 실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 설계에서 제시된 군산시 지역 내 행정-민간, 다양한 기관들 간의 윈-윈(WIN-WIN)의 실천 모델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지역의 청소년 조직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현재 조례 작업 중), 학생회 연합회, 청소년시설의 운영위원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조직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되 지역사회 전체의 정책적 제안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연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체 기구의 대표성을 갖기는 현재까지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 지역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기적인 활동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4) 행정기관 주도의 농산어촌형

: 전북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 제안

첫째, 완주군과 같이 농산어촌형 지역사회는 인구가 소규모이고 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접근성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완주군의 경우 현재는 행정기관 주도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조직 혹은 시민단체 주도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정책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슈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세부사업을 운영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요와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콘텐츠의 내실화와 발전을 끊임없이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5) 지역사회학교 중심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구축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한국산마을고등학교)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첫째, 강화군의 한국산마을고등학교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방식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과 지역주민(어른)간의 파트너십 강화” 이념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의 자치문화로 이어져 그들 스스로 토론문화와를 정착시키고 각종 행사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외부 교육연구기관의 학생자치문화 연구 대상학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행사와 축제, 문화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개최하였으며, 각자의 흥미에 따라 30여개가 넘는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대한 기획과 추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역사회학교’가 청소년과 지역주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중심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교육자원 파악,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인재상 정립,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산마을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의 형태는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2866호 일부개정 2014. 12. 30.]의 설립요건이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완화된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회가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 IV 장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사업 운영 연구

1. 운영목적
2. 추진내용
3. 2015년도 청소년참여 및 권리
분야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4. 청소년정책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 인식 변화
5.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제안
6. 소결

제 IV 장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사업 운영 연구*

1. 운영목적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의 운영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핵심조건으로 NICEF는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참여 방법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모니터를 실시하는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였다.

2. 추진내용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의 공간적 범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2015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와 권리’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의 운영은 이론적 토대 및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모니터단의 총괄적인 운영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담당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단은 17개 광역시도의 지역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모니터 활동을 수행하였다.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의 업무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첫째는 17개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정책에 대한 모니터활동, 둘째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정책을 개발하는 청소년정책개발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본 원에서는 청소년정책모니터단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가지 방법으로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을 지원하였다.

* 집필 : 김영한, 정윤미-본장은 하위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연구 III-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모니터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모니터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차는 청소년모니터 활동 내용과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영상교육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3차는 본 원을 방문하거나 연구진이 지역모니터단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모니터 활동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는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이 제안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청소년정책이나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사업화로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책사업지원자문위원’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청소년모니터 활동에 대한 현장모니터 내용에 대해 상담과 내용을 수정하여 피드백 하였으며, 2차적으로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화하여 제시하였다.

3. 2015년도 청소년참여 및 권리 분야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 14조에 의해 청소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이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과 관련한 중점과제는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은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권리증진기반조성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모니터 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참여와 권리증진 기반관련 시행계획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포럼지원, 청소년참여예산제 등으로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3-5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정책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 인식 변화

본 연구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모니터단 활동 전·후 비교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해 ‘2015 청소년 행복 지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이 모니터링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및 권리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청소년정책모니터단’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사전조사서는 154명, 사후조사에서는 146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웰빙 지표에서는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에서 정서적 경험에서는 긍정적 정서경험이 사전보다 사후가 낮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 및 권리 분야에 대한 사업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데미아¹⁷⁾에서는 모니터단 활동이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삶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분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들이 친구, 부모, 교사, 이웃 등과 의 관계가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에 있어서도 주변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다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환경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안전부분에대한 인식에서도 감소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모니터단 활동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을 살펴볼수록 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에 기인한다.

참여부분에서의 만족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참여개방 분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록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청소년 활동 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분야 사업의 대부분이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결과는 모니터단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아직까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이 미흡함을 의미한다.

17)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삶의 가치, 목적, 낙관성을 의미한다(이희길, 2014, 김지경 외, 2014, p.99 재인용)

5.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제안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이 제안한 정책을 보면 총 9가지 영역에 26개 하위영역으로 107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지역 당 6.3개의 의견을 제안 한 것이다. 영역별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참여 및 권리와 관련한 정책 제안이 25개로 가장 많았으며, 활동(20개), 안전영역(16개)의 순으로 정책제안을 하였다.

표 IV-1 영역별 청소년 생활공감정책 제안

영역	정책제안	지역
관계	가족과 활동 •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및 문화활동 공간 마련	세종
	지역사회 교류 • 활용되지 않는 공공의 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축제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남
건강	오수시간 • 교내 청소년 대상 오수 시간 운영	인천 충남
	건강관리 • 방학 중 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북
	위생관리 •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 교내 식수대 관리	경북
		경남
교육	진로 •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직업체험활동 다양화 • 인문계고교 취업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진로지도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창업 동아리 설치를 통한 청소년 창업 교육	서울
		경남
		강원
		전남
		경남
	성교육 • 성교육 강화, 교수법의 다변화 및 실효성 있는 성교육 실현	서울 경북
	기타 • 방과후 학교 수업에 자율성 강화 • 체험학습과 연계한 예술교육 실시(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과 연계) •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야간자율학습 폐지 • 특별반을 없애고 평등하게 수업 운영	울산
		전남
		경남
		경남

영역		정책제안	지역
안전	지역사회 안전	• 사각지대에 360도로 움직이는 CCTV 설치	부산
		• 안전지대 부스 설치	부산
		• 공사장 안전망 설치 및 주변환경 정리	광주
		• LED 가로등 설치 및 확대	충북
		• 가로등에 ‘호신벨’ 설치	전남
		• 안전귀가(CCTV 설치 확충 및 안전귀가 지킴이, 특수형광물질 도입 보편화)	전남
		•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 있는 노후한 운동기구들 수리 및 교체	경남
	교통안전	• 노약자 보호를 위한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인천
		• 무단횡단을 없애기 위한 법 강화 및 홍보 강화	대전
	안심귀가	• 심야시간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및 홍보 강화	부산
		• 청소년 안전귀가 서비스 제공	대구
		• 야간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탑승시 버스위치정보 부모에게 발송	제주
	청소년 안전 및 보호	• 청소년 안전 지킴이 집 및 청소년 등하굣길 청소년 보호구역 설정	대구
		•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위반시 벌금 강화	대구
		• 하교 전까지 학교 가로등 의무적으로 밝히기	대전
		• ‘친구명찰’ 프로젝트-학교폭력 예방 강화	강원
참여 및 권리	노동권	• 청소년의 노동권리 보장	서울
		•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확대	충북
	알 권리	• 학생들을 위한 공문 공개적 개방적 열람	울산
		• 청소년 정책 설명회 개최(교육감 및 단체장 참여)	강원
		• 청소년 정책 홍보 강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원
		•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정책을 홍보하는 ‘청소년정책 홍보단’ 구성	충남
	권리교육	• 학교 내 청소년 인권상담 프로그램(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	대구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수업 등을 통한 장애인 인권의식 변화	광주
		• 학교 외 공간에서 청소년 권리 침해시 건의 시스템 마련, 권리에 대한 교육 강화	경기
	참여활동 및 참여기구	•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부산
		• 청소년 참여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한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설치	부산
		• 두볼넷의 활성화와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활동 입시반영	인천

영역	정책제안		지역
참여 및 권리	참여활동 및 참여기구	• 청소년 교육정책단 구성(청소년 교육정책 참여)	울산
		• 청소년 참여 토론회 개최	울산
		• 청소년 참여 기구 위원들과 자치단체장 간담회 정례화	경기
		• 청소년 참여활동 홍보 및 소외계층 청소년 의견 수렴	경기
		• 청소년 참여 및 자치기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스코(YOUTHCO) 설치	충남
		•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 마련	경남
		•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 확대	전북
		• 교육관련 청소년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프로그램 마련	전북
		•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을 실제 집행하고, 집행된 정책에 대한 청소년 모니터링 활동 운영	경북
		• 농어촌 지역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홍보 강화	경남
	참정권	• 참정권(교육감 선거권) 확대	대구 경기 전북
활동	문화할인	• 후기 청소년에 대한 문화혜택(할인 등) 확대	서울
		• 청소년 문화시설 및 시외버스 할인 요금 시행	광주
		• 문화누리카드 발급 확대	울산
	문화 및 활동 공간	• 청소년 문화생활공간 확충	광주
		• 스카이라드 설치를 통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충북
		• 도 단위의 군 지역에 청소년 문화시설존 설치	전북
		• 청소년 공공문화시설 마련	전남
		•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문화존 혹은 놀이존 설치 운영	전남
		• 대학 캠퍼스를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오픈	전남
		•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회의 및 쉴 수 있는 공간)	경남
		•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시설 운영	제주
	활동	• 동아리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청소년 자기계발 확대	대전
		• 도서관 열람실 확대 및 동아리실 개방	세종
		• 청소년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및 숙박업소)	강원
		• 청소년이 주최가 되어 기획하고 운영하는 페스티벌 개최	경기
		• 농어촌 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및 강연 프로그램 운영	경남

영역		정책제안	지역
활동	활동정보 제공	• 지역 청소년분야 행사,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대전 울산 경기 제주
경제		• 청소년 경제의 날-청소년 경제교육	인천
지역 사회 환경	지역사회 환경정비	• 쓰레기 투표 설치(네덜란드-즐겁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프로젝트 벤치마킹)	광주
		• 학원가 및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확대	경기
		• 길거리 쓰레기통 및 흡연실 마련	충남
		• 조치원 역 앞 환경 개선	세종
		• 지역 하천 정화	세종
	유해환경	• 편의점에 신분증 검사기 도입	대전 제주
		•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설정 강화	세종
기타	청소년증	•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 증명 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충북
		• 국제 유스증 사용	충남
		• 청소년증 사용 활성화 및 홍보 강화	전남 전남 경남 제주
	대중교통	• 후기 청소년 대중교통 할인 적용	서울
		• 다자녀가정 환승 및 할인 혜택	부산
		• 대중교통 증설	부산
		• 대중교통 노선 증설	전남
		• 버스 운행시간 연장 및 노선 개편	경북
		• 대중교통 배차간격 단축	인천
		• 심야시간 버스 신설 및 버스 시간 연장 운행	충북
		• 통학길 자전거 도로 설치	부산
	기타	• 구직 단념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들의 자원봉사활동 동기부여 정책	서울
		• 학교 근처 식당 가격 및 맛 비교 어플	충남
		• 교사의 청소년에 대한 권리준중 및 이해 심화를 위해 임용고시에 청소년학 과목 이수	충남
		• 청소년 바른언어 사용 캠페인 및 예쁜말 사용 청소년 포상제	전남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전남

6. 소결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집되고 모니터링을 진행 한 기간은 6월~10월이다. 17개 시·도의 161명의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원들이 94번의 현장모니터링과 107개의 생활공감정책제안을 제출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모니터단원들이 청소년 참여기구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청소년 중심적이고 자유롭고 수평적인 토론을 지켜보며 이러한 활동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활동에 대해 모르는 청소년들이 더 많으므로,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제 V 장

분야별 주요 추진 정책 과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추진 정책 과제
2.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제안 정책
추진 과제
3. 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및 종합
지수 활용 정책과제

제 V 장

분야별 주요 추진 정책 과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추진 정책 과제

① 청소년 일자리 은행 운영 과제

사업개요		• 청소년들의 경제관련 기초지식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혹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병행	실현가능성	지역단위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긍정적 효과	○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기회 제공 ○ 일과 학습의 병행이라는 미래사회 가치 및 취지와 부합
			부정적 효과	○ 학생의 경우 지나친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학습시간 침해 우려
정책제안	추진 방향	독일의 Baden-Wuttemberg주는 문화청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금융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청소년행정기관과 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학교, 기업체 등이 금융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일자리 은행'을 운영함.		
	추진 절차	■ 1단계 : 청소년일자리 은행에 관한 외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2단계 : 지역별 청소년 자원과 관련 기관 파악 및 타당성 검토 ■ 3단계 : 사업 내용 확정 및 추진 주체 선정 ■ 4단계 : 지역내 사업 연계 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 5단계 : 시행계획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운영 방안 검토 ■ 6단계 : 실시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		
	추진 근거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①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②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③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④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 ⑥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⑦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박근혜 정부(2013-현재)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대책 추진(13.12) ★교육부: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14.10. 2.일 제55회 국가정책조정위원회 회의) ★국제사례: 일본의 중학생 대상 직장체험프로그램(Career Start Week)		

* 집필 : 김영한, 오해섭, 성윤숙, 정윤미

2 청소년 문화누리 카드발급 과제

사업개요		청소년 1인당 매년 50,000원의 상당의 지원금 혹은 문화상품권 지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	실행가능성	새로운 제도에 관한 연구 및 도입 절차상의 어려움이 예상지만 청소년증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모색
			긍정적 효과	-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 - 문화적 소양 강화
			부정적 효과	- 막대한 예산 소요 - 타 용도로 사용 가능성
정책 제안	추진 방향	청소년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반면 새로운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 활동과 다양한 소비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추진 절차	1단계 :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의뢰 2단계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대상별 시범운영 3단계 : 시범사업에 대한 장단점 검토 및 확산방안 마련 4단계 : 청소년증과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성 검토 5단계 : 최종 실시방안 마련 및 예산확보 검토 6단계 : 실시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		
	추진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3182호 일부개정 2015. 02. 03.]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등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1-1-4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 각종 할인제 및 청소년증 등을 통합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여성가족부). 국제사례: 영국의 기회카드, 스코틀랜드의 영 스카트 카드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1-1-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청소년문화존 확대(여성가족부), 창의예술캠프 내실화 및 토요문화학교 확대 등(문화체육관광부)		

③ 청소년 참여 예산제 운영 사업

사업개요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청소년 정책 및 활동과 관련된 예산의 일부를 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결정과 집행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실행가능성	인천남동구(2013), 충남아산시(2015), 서울성북구(2015)등의 지자체에서 ‘청소년(아동)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음.
		긍정적 효과	- 청소년정책과 예산에 대한 지역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음. - 청소년의 참여자치권이 강화되는 계기 제공
		부정적 효과	사전홍보 부족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발생 소지
정책제안	추진 방향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과 실행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예산 기획과 집행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사례로 예과 도르는 청소년참여예산제로 ‘민주주의의 민주화(Democratizing democracy)’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추진 절차	1단계 : 국내 청소년참여예산제 실시 사례 벤치마킹 2단계 : 지역내 시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참여예산제에 대한 논의 및 도입 추진 3단계 : 청소년참여예산제 참가자 모집 및 참여예산학교 교육과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등) 4단계 :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 개최 5단계 :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6단계 : 지역내 사업 연계 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7단계 :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모색	
	근거 조항	★청소년기본법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1-4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여성가족부) ★국제사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의 6번 원칙 「아동관련예산확보」, 핀란드 헬싱키시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 :의제와 예산가지 확정」, 필리핀 「청소년의회: 지자체 예산의 10% 지역 청소년 예산의 분배」, 브라질 바라만사시 「어린이참여예산 평의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편성 사례 예시¹⁸⁾

※ 분류코드 : 교육청소년과-0-0-00 (담당 : 000, 행정전화 : 0000)

회계연도 : 2015년	회 계 : 일반회계
조 직 : 교육청소년과	사업분야 :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아동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유엔아동권리협약조항 : 제31조
아동영향평가 대상 여부 : 대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시행,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어린이북 페스티벌, 청소년 참여 정책 창안대회 개최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함.

○ 사업기간 : 2015년 1월 1일 ~ (계속 사업)

○ 사업비 : 56,220천원(구비 100%), 연례 반복적 사업

- ####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위원회 운영
- (추진위원회, 영향평가위원회), 아동·청소년 참여 행사
(친구페스티벌, 청소년 참여 정책창안대회) 운영 등

○ 추진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
- 000 아동(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소요자원

○ 2015년 예산

(단위 : 천원)

자원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56,000	19,000	37,000	34.0%
예산총액	56,000	19,000	37,000	
국비				
시비				
구비	56,000	19,000	37,000	

4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정 사항(안)

- 2015년 현재 전국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추진 중임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조례 내용의 시행여부를 감시하고 성과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기관 혹은 자문기구의 역할과 청소년들의 참여 통로 확보 필수,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맨(행정 감시 및 민원도우미) 제도 및 정책모니터단과 같은 기구를 운영하는 것 필요함

구분	표준(안) 내용	권고사항
조례 명칭	○ <u>자치단체별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의 명칭 현황</u> ■ ‘어린이 친화도시’(서울시 성북구, 2011/노원구, 2012/동작구, 2013 등) ■ ‘어린이 행복도시’(군산시, 2015) ■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성남시, 2014/완주군, 2015)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광주광역시, 2015/광주광역시 남구 /부산사하구, 2015)	조례의 수혜 대상을 명료화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 혹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와 같이 청소년을 포함시키기를 권장함.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000시에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시행 2015.5.4.] 포함여부 검토
제2조 (정의)	○ ‘어린이’, ‘아동’, ‘어린이·청소년’,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연령규정에 근거하여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명칭에 청소년 포함 및 연령 근거 법(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 9-24세)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함.
제3조/ 제4조 (원칙/ 책무/ 재원)	00시장(군수)은 어린이(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더불어 「교육감과 지역주민(시민)」의 책무 추가요망 [참조: 광주광역시조례 제4조(책무)] - 조성 원칙 포함 - 재원확보부분 - 재원지원 항목을 청소년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위주로 구체화

18) 2015년도 서울시 성북구 ‘아동권리 접근방법 활용한 아동친화예산서’ p.196 참조.

구분	표준(안) 내용	권고사항
제4조/ 제5조 (구성 계획 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는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00군민(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조항을 추가하여, 계획추진 정도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참조:광주광역시 조례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어린이(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시(군)의원 4.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대표자 등 군민대표 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진위원회(구성)에 청소년 참여 위원회 위촉할 수 있는 조항 추가 요망, 교육청 참석

5 아동·청소년 친화(행복)도시 조성 및 운영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과 ‘제5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 아동·청소년의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내 참여를 확대하며, 성장단계에 적합한 역량 개발 기회를 균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000 아동·청소년 친화(행복)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 친화(행복) 도시”란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당한 참여·권익을 보장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안전과 보호, 더불어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과 아동복지법(18세미만)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대에 있는 자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성 원칙) 000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친화(행복)도시 조성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 제공한다.

지역의 아동·청소년 안전 및 보호 체계 구축한다.

지역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지역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기초서비스(건강, 활동, 여가, 문화 등)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제4조(재원 및 지원) ① 000 장은 아동·청소년 친화(행복)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청소년의 참여기구 설치, 청소년지도사의 전담공무원 배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실시, 지역정책에 대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역 아동청소년 정기실태조사 및 보고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아동청소년 행복(친화) 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① 000장은 장단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행복(친화)도시 조성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행복(친화)도시 조성 기반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행복(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청소년 행복(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000장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000 시·군·구의 ‘아동·청소년 행복(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000장은 아동·청소년 행복(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행복(친화)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자자체장이 되며 부의장은 아동청소년 행복(친화) 도시 조성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가. 자자체장
 - 나. 아동·청소년 친화(행복) 도시 조성 관련업무 담당국장
 - 다. 아동·청소년 친화(행복) 도시 조성 관련업무 소관부서 과장
 2. 위촉직 위원
 - 가. 000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 나. 000지역 교육감 또는 교육청장
 - 다. 000지역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라. 지역내 기관장
 - 마. 지역청소년대표 2명
 - 바. 지역주민(청소년부모) 대표 2명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친화(행복) 도시 조성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실행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000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00장은 위촉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000지역의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000장은 아동·청소년친화(행복)도시 조성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000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000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제안 정책 추진 과제

① 지역사회내 안전 확보를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1) 사업개요

현재 청소년 위기관리의 사각지대는 가정과 학교보다는 지역사회이다. 즉, 등·하교길이며,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의 야간학습이나 학원 강습으로 인해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으며, 중요한 위기관리 시스템은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안심 귀가 서비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실정에 맞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생한 필요에 기초하여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예방 및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제안 정책으로는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 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안전버스 운행, 모든 마을버스 안전귀가 서비스 제공 및 홍보 확대, 가로등에 호신벨 설치 등이 있다.

2) 추진목표

청소년이 늦은 귀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 시 위치정보 전송으로 택시 탑승시의 위치정보 전송에 상응하는 안전버스 운행 및 가정과의 교신을 확보한다.

3) 추진사업

○ 세부추진사업 1 : 위치정보 제공 안전버스 운영

- 자율학습 또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휴대폰이 없거나 배터리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부모님께 알릴 방법이 없으므로 택시의 QR코드를 이용한 위치전송 서비스에 상응하게 버스 탑승 시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으로 위치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부모님 휴대폰과 연동시켜 9시 이후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 시 부모님께 버스 위치 정보가 문자로 발송

- 버스회사, 지자체, 통신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세부추진사업 2 :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및 홍보 확대
 - 모든 마을버스들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 및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안심귀가 서비스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게시판이나 지역 게시판에 안심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버스번호를 알려주는 등 맞춤형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버스회사,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연계하여 시행하지 않는 회사에는 계도 및 제재를, 시행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및 활용률 제고
- 세부추진사업 3 : 경찰서의 안전귀가 동행 서비스 제공
 - 야간 10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귀가 시간대를 정하여 해당 구역 관할 경찰서에서 취약구간에 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귀가서비스 제공
 - 지자체, 학교, 경찰서가 협력하여 협정을 맺어서 구체적으로 심야 하교 시간대 일정 집단별로 학생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경찰서에 연락하면, 범죄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어두운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도로변을 함께 안전한 곳까지 담당 순경이나 경찰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체제 구축
- 세부추진사업 4 : 가로등 호신벨 설치
 - 밤 10시 부터 새벽 5시까지에는 누르면 소리뿐만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도 연락이 가도록 하는 ‘호신벨’을 설치하여 예방 및 방범 효과 도모
 - 지자체, 한전,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인적이 드문 범죄취약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벨을 누르면 경고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도 연락이 가도록 하는 ‘호신벨’ 설치 운영
 - 실제 위험에 처하더라도 호신벨 작동으로 강한 경고음만으로 범죄를 퇴치할 수 있고,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용이하여 범인 체포 및 제압 가능성 제고

② 청소년 문화 공간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청소년 문화 공간 확보 의제도 크게는 공유경제, 공유도시 실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도 공간이 24시간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한편에서는 공간이 남아돌아가는 잉여공간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 공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특히 청소년 계층에서 심각하다

공간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이용 시설은 많지만 돈을 지불하거나 동아리 등록 및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학교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체육관, 운동장조차도 학교와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하고 학생의 공간 활용 기회를 빼앗는 등 돈을 벌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불리한 조건과 환경 지배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휴일에 쉬는 공공기관(시·구청), 공공시설, 학교 및 문화 시설 중 사용되지 않을 공간 등 잉여공간을 면밀히 조사하여 버스킹 및 청소년 공연장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제도 제안한다.

2) 추진목표

- 휴일에 쉬는 공공기관(시·구청)을 버스킹 및 청소년 공연장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제도 제안
- 각 지자체의 유휴 공간, 학교 및 공공시설 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

3) 추진사업

- 세부추진사업 1 : 공공시설 중 청소년 전용공간 지정 운영
 - 기존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카페,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 및 기관 중 일정 공간을 청소년전용 공간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문화창작 및 향유, 놀이를 할 수 있는 전용공간 및 장소로 활용

-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 단체 등이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요구와 선호 공간을 연계하여 운영

○ 세부추진사업 2 : 잉여 및 여유학교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문화시설존 설치 운영

- 문화빈곤지역인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유휴시설에 대해 지자체마다 청소년 문화시설존을 만들어 영화, 독서, 노래방, 공연, 회의, 놀이, 수행평가 등 공부, 동아리방 등의 장소로 활용
-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 단체 등이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요구와 선호 공간을 연계하여 운영
- 농어촌 낙후된 지역 청소년들이 조금 더 문화시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청소년 뿐 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시민들도 문화생활을 접하게 되어 농어촌 활성화에도 기여

③ 지방자치단체내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및 활동체계 개선

1) 추진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4년에 전국의 청소년 7,46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알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가 55.0%,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가 34.3%, ‘알고 있으나 참여해보지 않았다’가 8.8%,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가 1.8% 이었음. 이중 청소년의 89.3%는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1.8%만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청소년시설 및 지자체 단위별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 청소년들은 참여기구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거나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정도가 매우 낮음

2) 추진목표

- 청소년참여기구에 일반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의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
- 지역단위에서 청소년정책결정자와 청소년간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참여사업의 실효성을 확보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 활동에 대한 홍보와 정책제안의 통로를 구축하여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을 제고

3) 추진사업

- 세부추진사업 1 : 청소년의견수렴을 위한 학교단위 ‘유스코(YOUTHCO)’ 운영
 - 각급 학교단위별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청소년참여기구에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일반 청소년의 정책제안 참여를 활성화
 - 청소년참여기구의 의견수렴 역할을 하는 [유스코-YOUTHCO]를 학교단위로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불만사항을 모으고 이를 청소년 참여기구에 제안
 -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에서는 유스코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정책기관에 제안
 - 유스코의 운영체계는 학교별로 ‘유스코건의함’ 설치, 학교내 학급회의 및 학교학생회 활동 시간에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유스코 토론회’ 운영, 학교별로 ‘유스코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부처간 협약을 통하여 학교단위로 청소년 의견수렴 기구인 유스코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개발하여 일선학교와 청소년참여기구에 보급
 - 유스코의 학교내 운영과 유스코와 청소년참여기구와의 연계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청소년기본법’에 마련
 - 지역별 청소년참여기구와 학교 유스코와 연계한 ‘유스코의 날’ 연합활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의견수렴 활동의 기획과 운영
 - 시범사업 : 40,000천원(20,000천원x2지역)
 - 본격시행 : 340,000천원(20,000천원x17지역)

○ 세부추진사업 2 : 청소년정책제안 앱 개발 및 운영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의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청소년참여기구에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정책제안 앱’을 개발하여 보급
- 모바일 앱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거주지별로 의견과 정책제안하고, 각 지역별 참여기구에 의견과 정책제안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성
- 청소년 정책제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향후 정책채택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구성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정책제안 앱’을 개발하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청소년특별회의 운영팀에서 전국단위 정책제안에 대한 피드백 등 관리
- 일반청소년들의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책제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을 확보
- 청소년정책참여 앱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200,000천원
- 지역별 청소년정책제안 운영관리비: 340,000천원(20,000천원x17지역)

○ 세부추진사업 3 :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정책 설명회와 청소년토론회의 정례화

- 지자체장 및 교육감의 정기적인 청소년정책 설명회 개최 : 각 지역별로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청소년정책 책임자인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지역내 청소년정책 설명회 정례화
- 청소년정책에서는 시도지사 및 관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위원 전체가 만나는 모임을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
- 교육정책에서는 시도교육감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대표 전체가 모두 만나는 모임을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
- 지역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정책 수립시 청소년토론회의 의무적인 운영
- 방법 : 청소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국가의 재정보조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시에 청소년토론회 및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운영

- 여성가족부나 중앙부처에서 국비예산이 지원되는 정책사업을 지자체에서 신청할 때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토론회를 운영한 증빙을 함께 제출하도록 지침을 마련
- 지역청소년 정책설명회 개최 예산 : 1회 300만원 (지자체 편성)
- 청소년 토론회 사업 예산 : 500만원(중앙·지방 50% 편성)

④ 청소년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 배경

청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은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 각 수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에서는 온·오프라인 및 SNS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정도는 높지 않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전국 청소년대상 조사에서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와 참여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추진목표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홍보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통하여 서 청소년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 한다

3) 추진사업

○ 세부추진사업 1 : 청소년정책홍보단 운영

- 청소년들이 학교나 친구를 통해서 쉽게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학교단위로 청소년정책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 중·고등학교 학교단위로 청소년정책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 청소년정책홍보단 단원은 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 지역 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직접 홍보를 진행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 진행

- 청소년 관련 개정된 정책,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홍보물(포스터)을 각 학교 게시판에 부착
 - 학교내 청소년정책홍보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에 의한 협력체계 구축 : 각급 학교별로 ‘청소년정책홍보단’을 교내 동아리형태로 구성
 - 기존의 홍보물 배포와 SNS 홍보 방식들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 내의 학생들과 소통하며 홍보하는 방안임
 - 시도별 청소년정책홍보단 운영비 85,000천원 (5,000천원x17지역)
- 세부추진사업 2 :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앱 개발
-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보급
 - 지역단위로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정책 모아보기 앱]을 개발
 - 청소년정책 및 활동 모아보기 앱의 기획 및 개발, 운영시스템 구축은 중앙에서 추진하고, 지역별 청소년정책 및 활동 관련 정보는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여 지역 관련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
 - 개발된 앱의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 청소년정책 모아보기 앱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 200,000천원
 - 지역별 청소년정책모아보기 앱 운영관리비 : 340,000천원(20,000천원x17지역)
- 세부추진사업 3 : 학생·일반청소년간 신분차별 방지 제도로써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
-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문화시설과 교통수단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청소년증은 비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되었지만, 10년이 지난 2014년 기준 신규 발급 건수는 5만 663건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10% 내외로 매우 저조한 상태임.
- 현재 청소년증은 학생과 비학생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청소년간의 신분 차별을 없애고 모든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하여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청소년카드로 전환이 요구됨.

-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증 뒷면에 소속학교를 기입할 수 있도록 체계화
- 청소년증의 우대제도 확대를 위해 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
-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구축 : 학교장의 권한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 비학교학생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청소년증 활용 영역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예산: 9세-19세미만 청소년증 발급예산 약 30억원

④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신분증 위조방지 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나 청소년 유해 품목(술, 담배, 본드 등) 판매점들은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유해 업소에 방문하고 술, 담배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분증을 위조해 입건된 미성년자들이 2009년 1,452명, 2010년 1,507명, 2011년 1,509명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ARS 1382를 통해 주민등록 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발급일자 입력 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비행을 저지르는 곳은 대부분 영세한 업장으로 업주가 위조 확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주로 야간에 행동이 이루어지므로 ARS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한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손 지문이 일치하는지 대조해볼 수 있는 지문 인식기를 유해업소나 편의점에 의무 설치화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2) 추진 사업

청소년 출입 불가인 유흥업소에 주민등록증 지문과 대조해볼 수 있는 지문 인식기 설치를 의무토록하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도 설치 의무화 하여 청소년이 판매 금지 품목을 살 수 없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청소년 밀집 유흥업소나 대형마트에 시범사업 실시한 뒤 전국의 업소로 확대해나감. 즉석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함

- 사업예산: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청소년출입 금지 업소 및 판매금지 물품업소에 ‘지문조회기’ 설치토록 권장함(별도예산 없음)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송후견인제도

1) 추진배경

최근 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이나, 부당해고, 임금체벌, 성희롱 등 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청소년은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신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인 소송 절차를 대리해줄 수 있는 소송후견인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근로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개설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상담하며 공인노무사회가 무료로 구제 신청 상담 및 진정 접수 절차를 도와주고 있으나, 노동청에 진정 접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위한 절차에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적인 소송까지는 도움을 줄 수 없으며, 특히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대리소송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 소송후견인 제도’를 마련하여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 절차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후견인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2) 추진 사업

○ 세부추진사업 1 : 청소년 소송후견인 제도 운영

- 청소년이 근로 및 생활 관련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문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소송후견인 제도를 운영함.

- 사업주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피해사례를 접수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각 지자체마다 확대 설치함. 근로피해 구제 상담 및 구제 신청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에서 청소년의 입장을 전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소년 대변인 제도를 구축함.
- 사업예산 : ‘소송후견인’에 대한 신분에 따라 차이 있음(공무원 임명 또는 위촉)

3. 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및 종합 지수 활용 정책과제

① 청소년행복지표 패널 자료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행복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개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 자료의 구축과 이를 통한 행복지표-특히, 주관적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¹⁹⁾ 패널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개별 청소년에 대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은 연구자로 하여금 행복 혹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해당 청소년 개인의 고유한 기질이나 천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행복 지표나 지수 생산의 원론적 목표는 ‘비교’에 있다. 이를 위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지표값 및 지수값의 생산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 행복 증진과 관련된 기존 통계자료가 정비되어야 하며,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기별, 지역별, 집단별로 자유로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후속 연구로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지역별 조사결과를 시계열적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행복마을 연구 결과와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19)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해당 개인의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임에 주장된다(hedonic adaptation). 일본의 내각부 산하 웰빙측정위원회 위원장인 오사카대학의 나오토 야마우치교수 역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자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독일의 사회경제패널이나 영국의 가구패널이 삶의 질이나 주관적 웰빙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②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지표항목의 첨가

지역사회청소년지표 관리의 체계성과 정밀성의 제고, 나아가 비용적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기관들의 조사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DB구축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DB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음. 나아가 장기적으로 통계청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계DB의 구축이 필요하다.

③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지표항목의 첨가

지역사회청소년지표는 무수히 많은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단일기관이 관련된 모든 통계정보를 조사·산출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단일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정교한 조사설계와 대규모표집을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분산형 조사, 집중형 관리”에 따라 각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존 통계조사에 새로운 항목을 첨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 DB를 연결하여 지역사회청소년지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DB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전체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통계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청소년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관한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계를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행복에 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학부모 등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 자료 제시 및 인포그래픽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고승희, 홍성효(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남발전연구원.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28-141.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94-197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46-249.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36-39.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96-99.
- 군산시 (2013). **제19회 군산통계연보**. 군산: 군산시청
-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2014). **트렌드 코리아 2015**. 서울: 미래의창.
- 김남정(2010).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의 촉진 및 장애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법과 인권교육연구**, 3(3), 15-47.
- 김영지, 전경숙, 김민, 김세진 (2003). **선진국형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연구보고 03-R50)**.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한, 임영식, 김민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연구보고 14-R15-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연구보고 13-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용진 (2013). 개인-환경 적합성 모델을 이용한 노인의 주거만족도 및 거주 의사 분석. **주거환경**, 제11권 제1호, pp. 51-62.

-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지역사회 진단·분석**(연구보고 14-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궁근 (2008). **정책학**. 서울: 법문사
- 마을교육연구소 (2012).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대구의 마을학교 이야기-**. 대구광역시: 한티재.
- 명성준 (2009).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의 모니터링.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 논문집**. 2009, 395-410.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2010), 한국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연구와국제비교, 한국 사회학.
- 배규한 (2014). 미래청소년보호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청소년연구**, 25(4), 113-136.
- 서종균 외 (2013).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 서울시 성북구.
- 성윤숙, 홍성호(2015).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측정과 정책제언, 대전: 통계개발원 워크숍 자료집.
- 쓰지 히데유키, 박형구 (2013). **기적의 마을 이야기**.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백서, p388.
- 여성가족부(2013). 2012 청소년백서, p404.
- 여성가족부(2014). 2013 청소년백서, p418.
- 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이진아(2014),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오해섭, 맹영임(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활성화 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 칠드런.
- 이상희, 이해원, 최경옥(2009). 아동,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청소년복지연구**, 11(3), 129-148.
- 이성, 정지웅 (2002). 지역사회조직론: 지역사회리더십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이재현·고봉성 (2012).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제10권 제3호, pp. 1-14.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pp. 47-89.
- 임준홍·홍성호 (2014).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제10권 제3호, pp. 1-14.
- 장근영, 이해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 김균희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 에서 2015년 6월 8일 인출.
- 천정웅 (1998).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 자율참여와 미래**(pp.113-133).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천정웅 (2014). **청소년참여론: 「P이론」의 청소년학**. 경기: 양서원.
- 천정웅, 오해섭, 김정주, 김민 (2011). **청소년활동론**. 경기: 양서원.
- 청소년기본법
- 한국사회학회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 홍승애(201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형득, 조은설 (2010).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다원적 접근: 정보화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3(4), 181-209.
- 황옥경, 김영지 (201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etts, S., et. al.(1996). *Moving Ahead Together: What works for youth*. Washington DC.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unn, W. (2004) *An 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Analysis*. Englewood Cliffs.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P. and Reder, M.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Academic Press, New York (1974)

- Erickson, D., Clark, S., & Kohn, M. (2010). AD/H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mpleted by Children or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5(3), 1-8
- Lerner, R. M.(2002). *Adolescence: development, diversity, context, and applic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actice Hall.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Oswald, F., Wahl, H., MollenKopf, H., and Schilling, O. (2003). Housing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in Two Rural Regions in Germany. *Research on Aging* 25(2), pp. 122-143.
- Peter L. B. & Karen J. P.(2001). *Trends In Youth Development :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Lond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ittman, K. J.(1992). *defining the fourth R: Promoting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 Pittman, K. J.(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Journal*, 1, 33-3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Takanishi, R.(1993). The opportunities of adolescence-research, interventions, and policy: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48(2). 85-87.
- UNICEF (2009). *Child Friendly Cities promoted by UNICEF National Committees and Country Offices- Fact sheet*. <http://childfriendlycities.org/wp-content/uploads/2013/04/pdf/CFCI-fact-sheet-14-sept-final.pdf>(2015년 6월 10일 검색)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군산교육지원청 <http://www.jbgse.kr/>
 교육부. <http://www.moe.go.kr> (검색 2015.7.2.)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신아일보(2015.3.23). 네이버 웹문서 (검색. 2015.7.7.)
 유니세프. www.UNICEF.or.kr (검색. 2015.7.2.)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검색
 2015.6.12.)
 통계청(2012).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3 에서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I3 에서 2016년 6월 8일 인출.
 통계청(2013).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I3 에서 2015년 6월 8일 인출.
 통계청 (2013). 시군구 GRDP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참고법률]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시행 2015.5.4.]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4.3]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문호영·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영석·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황세영·이경자·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해정·송미경
- 15-R10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오해섭·성윤숙·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모상현·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장안리·김판준·임영언·정호원·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정은주·강현철·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지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지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지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지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지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지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지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좌동훈·강경균·김정숙·황세영·문호영·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유성렬·임성택·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이유진·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
- 15-R44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김형주·박성재·민주홍·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이종원·유성렬·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정은주·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오해섭·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총괄보고서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대표 김연숙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72-4 94330

979-11-5654-060-1 (세트)